LUXURY

ESTATE 2021

DREAM HOUSE

최신 주거 건축 트렌드

ART COLLECTION

BVLGARI

COLORS

A JOURNEY BETWEEN JEWELS AND ART

불가리 컬러 전시회

2021.07.20 - 2021.09.15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전시회 티켓 수익금의 일부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내 아동들에게 후원됩니다.

LUXURY
ESTATE 2021

EDITORIAL 편집 Tel 2262-7437

편집장 Editor in Chief 윤정은 Jungeun Yoon · yoon29@design.co.kr

기자 Editor 안서경 Seogyeong Ahn · seo@design.co.kr
한동은 Dongeun Han · dehan@design.co.kr

게스트 에디터 Guest Editor 부계영 Kyeyoung Boo · 박지혜 Jihye Park
전종현 Harry Jun · 유승현 Seunghyun Yu

아트 디렉터 Art Director 손익원 Ikweon Sohn · bart@design.co.kr

디자이너 Designer 홍수연 Sooyoun Hong · syhong@design.co.kr
김보성 Bosung Kim · today17@design.co.kr

교열 Copy Editor 전남희 Namhee Jeon · 유진희 Jinhee Yu

ADVERTISING 광고 Tel 2262-7401 유통 관리 Tel 2262-7407
정기 구독 Tel 080-007-1200

이사 Director 이경호 Kyongho Lee · paradise@design.co.kr

부장 Chief Manager 김수진 Soojin Kim · kimsoojin@design.co.kr

차장 Manager 문민혁 Minhyuk Moon · moonmh@design.co.kr

유통 관리 매니저 Distribution Manager 송은우 Eunwoo Song · ewsong@design.co.kr

Deputy Manager 이건태 Guntai Lee · guntai77@design.co.kr

중국 사무소 China Office Creators Company
Beijing Xirenmei Culture Co. Ltd, Tel 86-010-5978-4889

DIVISION LEADER 김은령 부사장

PRESIDENT · PUBLISHER 이영혜 대표이사 · 발행인

자매지 월간 <디자인>·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월간 <스타일 H>

2021년 6월 24일 발행. 발행 공급처 : (주)디자인하우스(02-2275-6151)
필름 출력 : (주)에이디코아(02-323-6493) | 인쇄처 : M-print(031-8071-0960)
편집·광고 문의 : 02-2262-7401(팩스 02-2275-7883)
주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럭셔리>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주)디자인하우스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실린 이미지 중 특정 이미지의 경우 소유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월간<럭셔리>와 디자인하우스는 UNGC(UN Global Compact)의 회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원칙을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월간<럭셔리>는 대한잉크와 디자인하우스가 공동 개발해 최고의 인쇄 적성과 친환경적 특징을 자랑하는
'럭셔리 잉크'로 인쇄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원하는 많은 잡지들이 이 잉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의 일부 기사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esignhouse

DePoem Garden

e편한세상, 내 집 앞으로 다가온 도심 속 공원

드림하우스 갤러리는 e편한세상의 주거 철학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것을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다양한 주거 형태 제안과 전시, 경험 요소를 통해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집에 대한 로망을 실현했다.

ICON

06
POINT LIGHTING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펜던트 조명과 플로어 조명

PERFECT BATH
기분 좋은 목욕재계를 도와줄 욕조와 세면대

OUTDOOR FURNITURE
견고한 내구성으로 야외 공간을 책임져줄 가구

COZY FABRIC
생활에 낭만을 더해줄 감각적인 패브릭

VIEW

10
DREAM HOUSE
주거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건축가 10인이
좋은 집과 꿈꾸는 집,
미래의 집에 대해 이야기한다

SPECIAL

16
THE HOUSE OF DREAMS
꿈의 집을 실현한 드림하우스 내의 주거 공간

40
EVOLUTION OF MATERIALS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내외장재

44
C2 HOUSE
e편한세상만의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46
GLOBAL DEVELOPER
도전과 혁신으로 82년 역사를 이어온 DL E&C

47
FOR EXCELLENT LIFE
주거 문화를 이끌어 가는 대표 브랜드 e편한세상

48
DREAM HOUSE GALLERY
드림하우스 갤러리의 전시 및 체험 공간

54
PERFECT MATCH
페르소나에 맞춰 변화하는 맞춤 평면 솔루션

56
EXCELLENT COMMUNITY
삶에 여유를 더하는 최상의 공용 커뮤니티

60
DREAMING CREATORS
드림하우스 갤러리를 만든 사람들

68
TREND
지금 알아야 할 주거 건축 트렌드 5

74
TASTES & STYLE
취향과 스타일이 돋보이는 해외 명사들의 집

82
ART FOR HOME
집 꾸밀 때 도움이 될 현명한 예술 작품 선택법

86
BRAND RESIDENCE
세계 유명 브랜드의 레지던스

92
IDEAL SPEAKERS
집의 품격을 높여줄 하이엔드 오디오

The True Swiss Cellular Skincare

스위스 퍼펙션 만의 시그니처 액티브 성분 CELLULAR ACTIVE IRISA ® 가 농축된 RS - 28 세럼
피부 본연의 턴오버 주기를 회복하여 놀라운 피부 컨디션을 선사합니다.

www.swissperfection.com / www.sivillage.com / 고객 문의 1644 - 4490

'마루자' 조명은 다양한 크기의
나무 베니어 조각과 원형 프레임,
핀으로 이뤄진 조립식 펜던트 조명.
바람이 불면 얇은 베니어 조각이
살랑거린다. LZF(lzf-lamps.com)

천장에서 떨어지는 서로 다른
길이의 블로운 글라스가
중앙에 위치한 LED 전구의 빛을
따뜻하게 반사하는
'스토캐스틱' 펜던트 조명.
루체플랜(051-558-1317)

아르테미데를 대표하는
'톨로메오 메가 플로어'는
넓은 공간에 제격인 스탠드 조명으로
높이, 길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두오모앤코(516-3022)

Point Lighting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펜던트 조명과 플로어 조명.

ㄷ자형 직선 철제 스탠드의
가장자리에 전등을 달고
유리 돔으로 감싼 'IC 플로어' 조명.
간결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
플로스(516-3022)

알루미늄 프레임을 씌운 5개의
조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태티스토크랏Statistocrat' 조명은 모오이.
25가지 색상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웰즈(511-7911)

유연하게 휘어진 가는 자작나무
살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는
섹토디자인의 우든 조명 '옥토4240'.
핀란드 건축가 세포 코호가
디자인했다. 이노메싸(3463-7710)

베르너 판톤이 디자인한
베르판의 'VP 글로브'.
투명한 아크릴 원형 돔 안에 빨강과
파랑을 더한 펜던트 조명으로
유영하는 우주선 같은 인상을 준다.
보에(517-6326)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베테룩스-셰이프'는 직육면체의
강철 프레임에 곡선의 욕조를 얹어
유기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베테(my-bette.com)

태국의 도자 공예에서 영감 받은
골드 '벤자롱' 톱 볼 세면대는
미국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
콜러의 아티스트 에디션.
콜러(3473-9993)

10가지 색상으로 출시한 '리플렉스' 욕조는
투명하면서도 광택이 도는
유색 레진 신소재 크리스털 무드를 사용했다.
안토니오 루피(antoniolupi.it)

Perfect Bath

기분 좋은 목욕재계를 도와줄 욕조와 세면대.

대리석을 금속 선으로
구획한 독립형 세면대 '타오'.
작은 대리석 블록으로
조각해 재료 낭비를 줄이고
우아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크레오(kreoo.com)

벤트 우드 기술을 적용해 흐르는
곡선 모양을 완성한 'DR' 욕조.
브라질 건축가 마르시우 코강과
그가 이끄는 디자인 스튜디오
mk27이 디자인했다.
아가페(agapedesign.it)

비대칭의 물결 모양 테두리가 특징인
'페스카데로' 독립형 욕조는
바다에서 영감 받았다. 영국 럭셔리
욕조 브랜드 빅토리아 & 앨버트 제품.
V&A 배스(vandabaths.com)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콜러의 아티스트 에디션, '엠프레스 부케'
세면대. 골드와 플래티넘 장식이 욕실의 품격을 높인다. 콜러(3473-9993)

천연 티크 소재 캐노피 소파 '인아웃07'.
쿠션은 쉽게 벗길 수 있는
커버가 있어 세탁에 편리하다.
제르바소니(070-4209-0827)

유연한 철제 곡선이 대리석을 받치고
있는 형태의 '스핀'은 프렌즈 &
파운더스의 야외용 사이드 테이블.
이노메싸(3463-7710)

스페인의 아웃도어 디자인 가구 브랜드
본돔이 출시한 'ULM' 데이 베드는
접이식 캐노피를 탑재해 뜨거운 햇빛을
막기에 용이하다. 본돔(vondom.com)

Outdoor Furniture

견고한 내구성으로 야외 공간을 책임지는 가구.

로낭 & 에르완 부훌렉 형제의 아웃도어 컬렉션
'팔리사드' 시리즈는 간결한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이
특징으로 정원, 발코니 등 다양한 환경에 적합하다.
헤이(3463-7710)

영국의 주목받는 디자인 브랜드
파예투굿의 '롤리폴리' 체어.
신체의 둥근 모양을 살린 디자인이라
앉으면 몸을 부드럽게 감싼다.
HB홈(031-718-5832)

대나무 소재에 오일 처리를 해 야외 환경에 적합한 '서클' 다이닝 테이블.
중앙의 화강암은 뜨거운 것을 올릴 때도 유용하다. 일바(3477 - 1222)

오트 쿠튀르 가구를 선보이는
모로소의 '허스크'. 어망에 사용하는
실을 사용했고 프레임은 녹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코팅 처리했다.
디사모빌리(512-9162)

베를린 기반의 블레스 서비스는
매 시즌 다른 디자인의 태피스트리 블랭킷을 선보인다.
2017년 발표한 '스위밍 투게더' 컬렉션 중 '풀베일' 블랭킷.
블레스 서비스(blessweb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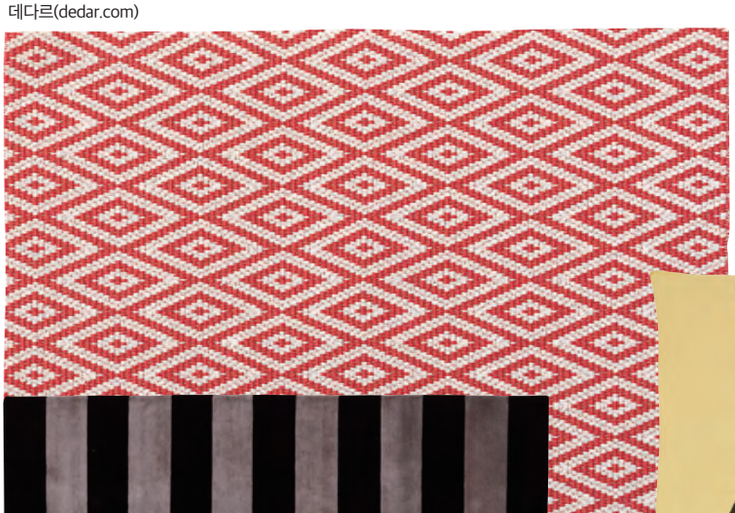
따뜻한 색감의 원형 페르시안 러그를
비틀어 독창적인 모양으로 재탄생한
세이 투셰의 '리퀴파이드 페르시안 러그'
에이치픽스(3461-0172)

클래식한 모로코 러그에서
영감받은 '앨리스04' 러그는
터키에서 생산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과 색감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롤로이(3461-0172)

Cozy Fabric

나만의 공간을 완성하는 감각적인 패브릭.

폴리프로필렌 소재에 염색으로
비비드한 색감을 더한
아웃도어용 패브릭 '바스켓'.
쨍한 색감과 견고함이 특징.
데다르(dedar.com)



폭포, 개울물 등의
디테일로 매력적인 숲을 묘사한
'포레' 벽지. 독창적 패턴으로
사랑받는 프랑스 파리의
패브릭 브랜드 르리에브르 제품.
다브(512-8590)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폴리폼의 '스트라이프' 러그.
수제 베틀 기술로 제작한 대나무 비단과 모피 울을 사용해
극도의 부드러움을 자랑한다. 디사모빌리(512-9162)

'카우 니트 블랭킷'은
유럽 친환경 섬유 인증(오코텍스)을 받은
80%의 재활용 천을 사용했다.
콜드피크닉(coldpicnic.com)

DREAM HOUSE

좋은 집은 어떤 곳일까?
따뜻하고 시원하며 비바람과 태양빛을 막아주는 등 최소한의 기준은 있겠지만,
결코 절대적인 요소는 없을 것이다. 집은 건축가가 짓지만, 좋은 집은 건축가와 주거자의 합작품이고,
행복한 집은 전적으로 머무는 사람의 몫이다.
잠과 밥을 해결하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사랑이 싹트는 곳, 이제는 일을 포함해
무엇이든 가능해진 마법 같은 곳. 완벽한 삶의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세계 각지의 건축가가 답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집, 꿈꾸는 집 그리고 미래의 집에 대해서. 다양한 영감을 따라
'자신만의 집'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DelaVegaCanolasso

당신의 드림 하우스는? 정원과 건물을 분리하는 경계가 자연으로 둘러싸인 집. 얼마 전 타계한 브라질의 건축 거장 멘드스 다 호샤Mendes da Rocha의 '카자 부탄탕Casa Butantã'과 또 다른 브라질 건축의 대가인 오스카르 니에메예르Oscar Niemeyer의 '카자 다스 카노아스Casa das Canoas' 사이에 있는 무언가라고나 할까?(웃음) 지금까지 구경한 집 중에서 드림 하우스에 가장 가까운 예는 오스트리아 건축가 롤란트 라이너Roland Rainer의 '아텔리에르하우스Atelierhaus'다. 아담하고 단순한 오스트리아 시골집인데, 나무가 적당하게 둘러싼 오래된 돌담을 기본 구조로 삼아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모양새다.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의 조건은? 잎이 무성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집인데 정원과 바로 연결되는 게 필수다. 기본적으로 단층 건물이되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작은 탑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반드시 식물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건물도 농익어서 그 모습이 점점 더 나아지면 좋겠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의 정의는? 처음 보더라도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집. 건물 주위의 환경과 하나가 되는 집이랄까?

살기 좋은 집에 대한 당신의 철학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늑함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빛이다. 애초에 집을 지을 때부터 자연광을 제대로 설정하고, 세심하게 인공광을 추가해서 따스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로 집 안을 채워야 한다.

델라베가카놀라소

이그나시오 데 라 베가Ignacio de la Vega와 필라르 카노 라소Pilar Cano Lasso가 설립한 마드리드의 젊은 건축가 그룹. 빛의 통합과 환경의 본질을 강조하는 작업에 몰두한다. 현장 작업에 대한 노하우와 조립 가능한 부품이 만나 풍부하고 민첩한 건축이 구축되며 시간에 따라 온전하게 적응 및 개선된다고 믿는다. 2021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서 영 유러피언 아키텍츠 어워드를 수상했다.

코이치 타카다

도쿄, 뉴욕, 런던에서 생활한 그는 2008년 시드니에 코이치 타카다 아키텍츠를 설립한 이래 호주 건축에 일본적 감성을 불어넣고 있다. 자연과의 연결, 도시환경의 인간화와 자연화에 중점을 두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연과 건축의 합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의 사무소는 세계 최대 디지털 건축 미디어 <아키타이저>가 '2021년 최고의 중형 건축 사무소'로 선정한 바 있다.

Koichi Takada

당신의 드림 하우스는? 근래 작업한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해바라기 하우스'라고 이름 붙인 집인데 자연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만큼 저감시켜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넘어, 이산화탄소 자체를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카본 포지티브Carbon Positive'를 지향한다. 친환경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 지속 가능한 건축 원리를 통해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의 정의는? 근본적으로 주거 건축은 환경을 존중해야만 한다.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자연과 연결하는 역할 또한 맡아야 한다. 이런 건축관 아래 탄생한 건물은 보이기만 친자연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는 곳, 동네, 지구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좋은 집 아닐까.

살기 좋은 집에 대한 당신의 철학은? 팬데믹 이후 바이오필릭biophilic(자연bio과 순수한 사랑phlia을 합친 용어)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이다. 바깥에 있던 자연을 건물 내부로 들여오는 것만이 아니다. 자연의 여러 측면과 관계망을 이루고 이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자연광, 환기, 식물, 텃밭, 천연 무독성 재료, 텍스처와 패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등 말이다.

앞으로의 집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형태는 자연을 따라야 한다. 현재진행형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건축가가 할 일이 수없이 많다. 카본 포지티브뿐 아니라 미래에 인류가 겪을 수 있는 해수면 상승과 극한의 날씨 변화에 견딜 수 있는 탄력성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이 사는 집과 도시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우리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Manuel Aires Mateus

당신의 드림하우스는? 이탈리아 로마 근처 티볼리에 위치해 있는 '빌라 아드리아나Villa Adriana'다.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를 위해 기원후 2세기에 지은 건물이다. 무한 그리고 완전한 자유, 두 단어의 동의어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주거 공간의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건물보다 위대한 야망을 보여주었다.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의 조건은? 특정한 기능에 맞춰 그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쓰고 싶다. 모든 수준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장소를 원한다.

펜데믹 이후 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체감하는가? 지금까지의 사회는 공공 공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적 공간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여기곤 했다. 그러나 펜데믹 이후 모두의 관심이 주거 공간에 집중되었다. 집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 존재가 하나의 공간에 한정될 수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의 집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인간은 자유롭고 단순하며 수준 높은 삶을 꿈꾼다. 주택의 경우, 크기나 가격 같은 가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곳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격조다.

마누엘 아이르스 마테우스

196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나 리스본 공과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다양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명성을 쌓았다. 세계적인 건축 잡지 <엘 크로키El Croquis>,<AV> 등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모노그래프로 다뤘고, 하버드 대학교와 코넬 대학교 등에 출강했다. 2017년 포르투갈에서 가장 영예로운 문화 공로상인 페소아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토머스 헤더윅

1970년생으로 영국왕립예술대학에서 공부했다. 1994년 헤더윅 스튜디오를 설립해 가구, 제품, 건축, 도시 등 경계를 아우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채로운 소재 실험과 사용성 테스트를 중시하는 그는 200명이 넘는 동료와 함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며 작업실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우리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며 동시대 영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크리에이터로 꼽힌다.

Thomas Heatherwick

당신의 드림 하우스는? 1995년 나는 집과 사무실을 합친 공간에서 스튜디오를 시작했다. 소기업이나 공예가에게나 해당하던 흔치 않은 경우였다. 감히 선언컨대, 이제 친구나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으면서도 사생활과 직장 동료와의 소통을 보장하는 상호 연계된 공간으로서 집과 일터를 다시 생각해야 할 순간이 도래했다. 어디가 일터이고, 어디가 집인지 정의하려는 편협하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흐려지고 변형되며 사라지는 현상을 환영한다.

팬데믹 이후 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체감하는가?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일주일에 5일 혹은 그 이상 사무실에 갇혀 있었다. 집은 일터에서 탈출해 남은 이틀 동안 지내는 피난처였다. 그런데 많은 이가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일을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경험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예전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흥미로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집이 더 풍요로운 삶의 장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일터라는 개념에 좀 더 고무적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하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 곳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집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재택근무가 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직장 내 획일적인 플라스틱 책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케이블과 온갖 전깃줄을 적재하기 위해 존재하던 환경, 결벽증이 난무하는 작업장에서 사람들은 영혼 없이 일하곤 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온기를 바깥 세계에서 가져와 집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집처럼 일터 또한 더욱 인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Katsufumi Kubota

당신의 드림 하우스는? 자연과 정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의 조건은? 무엇보다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의 정의는? 좋은 집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우리 각자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좋은 집이라 불릴 만한 곳이라면 인간을 위한 몇 가지 기본이고 공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팬데믹 이후 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체감하는가? 팬데믹 이전이든 이후든 주거 건축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제는 여러 조건들이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집에 대한 조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해가 갈수록 자연환경이 혹독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를 고려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살기 좋은 집에 대한 당신의 철학은? 커다란 나무 아래 잔디밭에서 즐기는 소풍은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상호 인정하는 공동의 편안함이 존재한다. 이런 경험을 안정적으로 제공할수록 좋은 집이 아닐까?

카츠후미 쿠보타

1988년 쿠보타 아키텍트 아틀리에를 시작했다. 건축을 통한 자유의 쟁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종이 문화에 뿌리를 두고 이를 현대적이면서도 흰색에 기초한 정교한 공간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시도 중이다. 우주에 스며드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자연스럽게 보호받는 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해 유리창의 투명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건물의 강약은 주로 콘크리트로 표현한다.

프란 실베스트레

1976년생 스페인 건축가로 2005년 발렌시아에 건축 및 디자인 스튜디오인 프란 실베스트레 아르키텍토스를 설립했다. 그는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국제적인 협업 활동을 지속해왔다. 중국, 미국, 브라질, 크로아티아, 스페인 등지에 완공한 그의 다양한 작업은 예술전문 출판사로 유명한 파이돈, 타셴, 템스 & 허드슨이 출간한 여러 서적에서 다뤄졌다.

Fran Silvestre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의 정의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베아트리츠 콜로미나Beatriz Colomina 교수의 저서 <X-레이 아키텍처>를 보면 좋은 집에 대한 흥미로운 예시가 있다. 그는 질병과 같은 문제를 피하고자 훌륭하고 깨끗한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한다. 이런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좋은 집을 추정해보면 자연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서로 교차하며 환기하는 건축일 텐데,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다

펜데믹 이후 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체감하는가? 집이 거주자를 보호하고 바깥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동시에 많은 집이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밀을 들켜버렸다. 이런 양면적 상황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재발견하고,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며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도왔다. 이제 집이 진정한 휴식처가 되기 위해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의 구성부터 환기, 내·외부의 관계 등 모두가 결국은 연속성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존중하는 환경과의 연속성은 시간이 지나도 그 쓸모를 잃지 않는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수백 년간 여러 용도로 쓰이면서 매 순간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건물을 목도할 때면 말 그대로 환상적인 감동을 느낀다.

앞으로의 집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건축은 향후 10~20년 이내에 완전히 바뀔 것이다.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환경과 기술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신화에서 모험을 떠나던 아르곤 원정대라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화해야만 한다.

Lauren Rottet

당신의 드림 하우스는? 트리 하우스 형태의 단순한 오픈 비치 하우스로, 대지와 하나가 된 집 위에 다시 올려 지었다. 일관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 예상치 못한 즐거운 순간이 존재하는 곳이다. 주방은 최고급 가전제품과 효율적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층 침실 창문으로는 끝없는 경관이 펼쳐지며, 아래층 침실은 개인 뜰과 연결된다. 수영장의 물이 방의 가장자리에서 충분히 접근할 만큼 채워져 실외를 끝없이 반사한다. 비교적 낮은 천장과 어둡고 따듯한 느낌의 벽 그리고 거대한 벽난로가 있는 비밀스러운 방도 있다.

당신이 살고 싶은 집에 필요한 조건은? 간결한 유리창과 금속 파사드 그리고 단단한 나무 바닥을 빼놓을 수 없다.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벽은 예술 작품을 걸어놓도록 전략적으로 설계한 집. 조명은 외부에도 설치해 밤에도 반사 현상 없이 밖을 잘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침실은 3개가 필요한데 4개면 더 좋다.(웃음) 모두 스위트룸처럼 큼지막한 사이즈에, 그중 2개엔 벽난로가 있으면 좋겠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의 정의는? 좋은 집은 추위와 더위, 비와 태양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집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 기능적으로 적절히 적응하며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집중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고 치자. 실제로 소음이 적어야 할 것이고, 방으로 접근하는 복도에 문을 추가해 완충 역할을 해야할 수도 있다. 미닫이문이나 천을 덧댄 문을 설치하면, 일하는 중에도 바깥 공간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벽면 전체에 방음 처리를 하면 금상첨화다. 집 안의 공간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로런 로테트

미국이 사랑하는 스타 실내 건축가로 로테트 스튜디오의 창업자이자 소장이다. 여성 최초로 미국건축가협회(AIA)와 국제인테리어디자인협회(IIDA)에서 펠로 지위를 모두 획득했다. 세계적인 인테리어 잡지 <인테리어 디자인>의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수많은 영예와 상을 받았고, <인테리어 디자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2017년 출시한 가구 컬렉션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웬창 한

아크스튜디오Archstudio의 설립자이자 소장. 2005년 중국 베이징의 중앙미술학원 건축대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는 모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통적인 지혜로 물리적 환경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중시하며 특히 공간은 매개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 자연, 역사, 문화, 공간의 관계를 설계한다. <아키텍추럴 다이제스트>의 'AD100'에 5년 연속 선정되었다.

Wenqiang Han

당신의 드림 하우스는?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안뜰이 있는 집. 도시에서 지나치게 멀어도 안 되고 너무 시끄러워도 곤란하다. 그래야 나 혼자 머무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꾸려나갈 수 있을 테니까.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의 조건은? 별다를 것 없다. 손님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접견 공간, 크고 단순하며 깨끗한 침실, 서재, 풍부한 햇빛과 신선한 공기로 채워진 실내, 좋은 전망이면 충분하다. 장식도 과하지 않으면 좋겠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의 정의는? 좋은 집은 자연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자연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일조와 환기, 단열이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건축은 자연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만들 때도 일부러 외형을 뽐내기보단 건설의 논리를 존중하고 그 자연적 속성을 합리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료도 마찬가지다. 소재 자체가 지닌 미적 감성을 보여주며 단순함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줄이는 방향이 가장 좋다. 더불어 집은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욕구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곳이다. 그러니 편안하고 따뜻해야 한다. 생활 공간을 넘어 감정과 기억을 담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의 집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앞으로 집은 더 개인화되고 똑똑해질 것이다. 거주자 각자의 다양한 성격과 취향을 반영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아 숨 쉬는 유기체처럼 인간의 욕구가 변화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반격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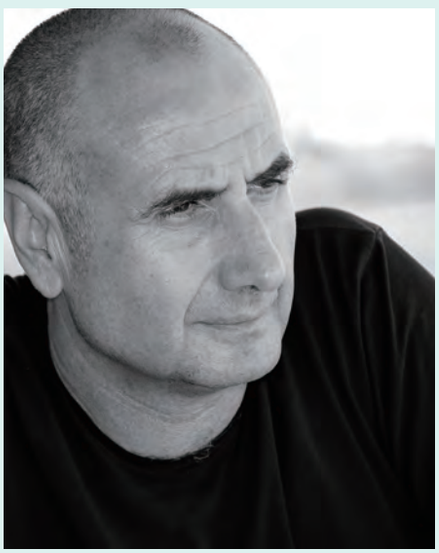
Mário Martins

당신의 드림 하우스는? 드림 하우스는 고객과 장소, 환경이 결합된 산물이다. 그래서 아직 마음속에 완벽한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고 나도 계속 찾을 뿐이다.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의 조건은? 완벽한 집에 살고 싶지만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환상적인 장소에 터를 잡아 무척이나 아름다운 전망을 갖추고 디자인까지 훌륭한 집이 있다 하더라도, 도리어 마음속으로는 좀 더 작고 편한 공간을 원할지도 모를 일이다. 모름지기 공간은 융통성을 발휘하며 사람들 각각의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성질을 지녀야 한다. 예측할 수 없이 바뀌는 것이 사람 마음이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의 정의는? 좋은 집이란 입지 등에 따른 물리적 결과이면서 또한 감각의 산물이다. 장소와 기후에 반응하지만, 무엇보다 거주자의 감정과 성격에 상응하며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해야 한다.

앞으로의 집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집은 그 시대의 기술적, 사회적, 인간적 맥락에 대한 반응이자 역사적, 문화적 거울이다. 오늘날의 집이 현재 상황에 의한 결과라면, 미래의 집도 당시의 변화를 반영할 것이다. 그러므로 집은 현실에 대응하는 변화무쌍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마리우 마르팅스

1964년생으로 포르투갈 라구스와 리스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리우 마르팅스 아틀리에를 이끌고 있다. 그의 건축사무소는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다양한 국가와 배경, 문화를 가진 많은 고객들과 협업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과 장소, 과거와 현재를 존중하고, 지속 가능하며 더 나은 미래에 이바지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리오 쿠치넬라

1992년 파리에서 마리오 쿠치넬라 아키텍츠를 시작했다.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와 볼로냐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이다. 10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소는 환경 및 에너지 전략을 통합한 건축설계가 전문이며 지속 가능성 문제를 탐색하는 자체 R&D 부서 또한 운영 중이다. 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Mario Cucinella

당신의 드림하우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내 열정을 키울 수 있는 집이다. 나무나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이 어떤 것이든 자라나는 걸 지켜볼 수 있고, 집 안팎을 맨발로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집이면 좋겠다.

당신이 살고 싶은 집에 필요한 조건은? 전통적 건축에서 기후에 대처했던 기본적인 방법을 존중하고 싶다. 자연광을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환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에서 구한 재료를 쓰고,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최적의 장소를 계산하며 자연과 관계 맺던 방식 말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의 정의는? 나에게 좋은 집이란 곧 윤리적인 집이다. 미적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현재 내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탄소 저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다. 탄소 저감을 이끄는 저변에는 선善과 미美를 동시에 염두에 두는 기반이 존재한다. 미적 가치가 파생되는 윤리적인 면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팬데믹 이후 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체감하는가? 팬데믹이란 비극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넓은 의미에서 공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양질의 건축에 대해 생각하는 범위가 사적인 공간에 그치지 않고 공공 공간과 거리, 박물관, 술집, 레스토랑에까지 이르렀다. 평범하게만 보이던 모든 것들이 갑작스레 달라졌다. 항상 끄트머리로 밀려나 있던 건축과 기술, 지식이 토론의 중심부로 진입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늘날 주거 공간은 기준에 갇혀버렸다. 열망, 욕망, 문화적 생활 방식은 배제된 채 말이다. 문화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공간이란 특성을 잊은 것이다. 이제라도 복지의 첫 걸음인 사회 주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행 전종현(게스트 에디터)

THE HOUSE OF DREAMS

라이프스타일의 형태가 다채로워지고, 가족 구성원의 전형적 형태가 사라진 시대.
남들이 다 하는 뻔한 것이 아닌 나만의 확고한 취향과 감각을 실현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내 삶의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집. 누구나 이런 집을 꿈꿀 것이다.
e편한세상은 '모두가 꿈꾸는 집The House of Dreams'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주거 및 브랜드 경험 공간을 담아낸 '드림하우스 갤러리'를 한남동에 오픈했다.
집의 모든 가능성을 아우른 다양한 주거 형태와 커뮤니티는 물론
리빙과 뷰티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콘텐츠를
심도 있게 경험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이 그려온 꿈의 집이 여기에 펼쳐진다.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기존 주거 공간의 개념을 깨고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다양한 주거 타입을 제안한
e편한세상의 브랜드 쇼룸, '드림하우스 갤러리'.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오픈형 LDK 구조

거실, 다이닝, 부엌이 한 공간으로 이뤄진 구조를
오픈형 LDK(Living Dining Kitchen) 방식이라 부른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이닝의 경계를 없애
공간을 보다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특히 작은 집일수록 효과적인 구조다.
현관 복도에서부터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해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을 선사하며 집이 훨씬 넓어 보인다.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중심으로 한 오픈형 구조는 공간 연출을 용이하게 하고
가사 이동 동선도 단축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한다.
넓은 공간에 커다란 식탁을 배치해 식사나 티타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오픈형 LDK 구조는 가족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돕는다.
8인용 식탁과 와인 랙을 설치하고도 공간이 넉넉하게 남는 데다, 탁 트인 느낌까지 선사한다.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집도 개성 있는 삶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e편한세상은 가변형 벽식 구조를 적용해 자유로운 공간 분할과 방 배치가 가능하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 합치고 나누는 공간 솔루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공간 개조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가 자라 그들만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할 때, 나만의 취미 공간이 필요할 때,
라운지처럼 넓고 쾌적한 거실을 꾸미고 싶을 때.
기존 공간의 개념을 깬 라이프스타일 맞춤 솔루션이 그 해답이다.
e편한세상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변 벽체를 사용하고 구조 벽체를 최소화해
유연한 공간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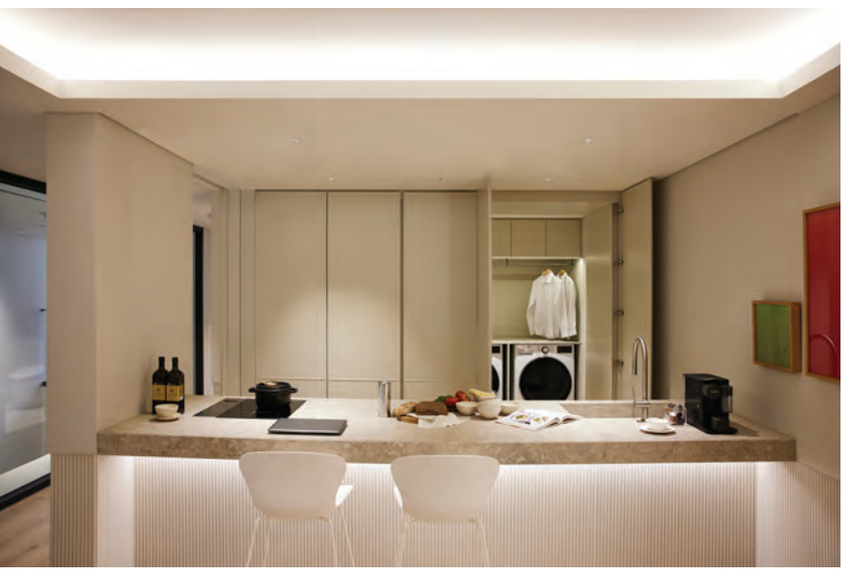
사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 속 또 하나의 공간

e편한세상의 특별한 점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도
또 하나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방 속 또 하나의 방 형태로 그 안에서 자고, 쉬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취미 생활을 하는 등 모든 일상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디자인해
더욱 풍성하면서도 자유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똑같은 구조의 공간도 머무는 이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연출되기 마련. 발레와 필라테스를 즐기는
자녀를 위한 방을 콘셉트로 하여
침실 안에 또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했다.
나만의 공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양질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대다.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는 풀 퍼니시드 타입의 빌트인 가구를 활용해 마치 하나의 벽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스튜디오형 주거 공간. 현관 팬트리부터 주방, 미니 홈 바, 재택근무가 가능한 워크 스테이션까지 모두 히든 타입으로 디자인해 작은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인 & 아웃in & out 키친 타입으로, 반오픈 형태의 주방이 안쪽에 숨어 있어 조리 시의 지저분한 작업을 노출할 우려가 없다. 주방 안쪽으로는 별도 세탁 공간을 마련해 세탁, 건조 및 다림질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집안 곳곳 숨어있는 트랜스포머, 히든 공간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생활 패턴에 따라 일상을 유지하는 건 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e편한세상이 과감하게 선택한 '히든' 시스템은 정돈된 일상을 가능케 한다.
히든 공간은 집 안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모두 닫으면 마치 하나의 벽처럼 보이는 히든 타입 붙박이장 안에 주방과 수납공간, 팬트리, 워크 스테이션 등을 숨길 수 있다.
그야말로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닫혀 있으면 언뜻 벽면처럼 보이는 히든 팬트리는 용도에 맞게 내부 선반을 구성할 수 있어 보다 깔끔한 주방을 선사한다.

집을 더 넓고 높게,
공간의 여유로움을 더한 아트 월과 천장

e편한세상은 어떠한 스타일링을 해도 이질감이 없는 모던하고 시크한 소재를 사용하고,
유해 성분 걱정 없는 대형 세라믹 아트 월을 거실에서 주방까지
확장, 적용해 더 넓고 탁 트인 느낌을 제공한다. 천장에는 입체적인 구조에
슬림한 조명을 더한 우물형 디자인을 적용해 층고가 한층 높아 보이도록 했다.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어지며 마치 하나의 벽처럼 확장된 아트 월은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간결한 패턴을 활용해 불필요한 시선 분산을 줄이고,
거실에서 주방까지 이어지는 벽을 대형 세라믹 패널로 설계해
하나의 벽과 같은 인테리어 효과를 냈다.

누구나 한번쯤 꿈꿔봤을 뉴요커 감성의 인테리어.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벽돌 마감과
격자 패턴의 유리창으로 인더스트리얼 분위기를 더하고 복층 특유의 개방적인 느낌을 극대화했다.
다이닝 공간이 거실과 연계되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분리된 히든 키친은 생선이나 고기 요리 시 집 안에 냄새가 퍼질 우려를 덜어줄 뿐 아니라,
자질구레한 부엌 살림살이도 숨길 수 있어 완벽한 보조 공간의 역할을 한다.
현관에서 주방까지의 이동 동선도 최적으로 설계했다.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제공하는 복층형 스튜디오 타입의 주방.
채광을 위한 측면 창을 설치해 높은 층고의 공간을 한결 더 쾌적하게 했다.
달라진 현대인의 평균 키를 고려해 싱크대와 주방 상판의 높이도 3cm 더 높였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꿈의 주방

e편한세상은 주방의 불편했던 문제들을 사용자에 편의에 맞춰 세심하게 개선했다.
싱크대 앞에 시원하게 펼쳐진 와이드 창호는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해 주방 생활을 한층 쾌적하게 한다.
조리대와 아일랜드 식탁은 현대인의 달라진 평균 신장을 고려해 상판을 높였다.
또한 히든 키친을 마련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오염을 차단하는가 하면,
히든 수납을 통해 각종 살림살이들을 깔끔히 정리할 수 있게 했다.

가로 형태로 시원하게 펼쳐진 와이드 창호가 채광과 통기 효과를
높여 한층 쾌적한 주방 생활을 돕는다.
싱크대 위아래에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 각종 수납 문제도 해결했다.

안방과 이어져 있던 실외기실과 세탁실을 후면에 배치해 더욱 넓고 여유로워진 안방.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서재형·가족형 등 보다 자유롭고 색다른 공간 구성이 가능해졌다.

안방을 안방답게, 공간의 유연한 활용

마치 정해진 공식 같던 이전의 안방은 공간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발코니나
한쪽 벽을 전부 차지하는 창호 때문에 나만의 취향을 담기도, 지루해진 가구 배치를 바꾸기도 힘들었다.
e편한세상은 과감하게 발코니를 없애고, 와이드 창호를 적용해 안방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했다.
특히 와이드 창호는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 가로로 길고 천장 높이까지 이어진 디자인 덕분에
공간 안으로 햇살을 가득 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가구 배치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베란다로 통하는 창호 때문에 방 한쪽 면을 사용하기 어렵고 가구 배치도 제한적이었지만,
e편한세상은 창호 디자인을 과감하게 변경해 안방의 공간 활용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침실과 욕실 사이에 드레싱룸을 배치해 집에 오자마자 옷을 벗어 의류 관리기에 넣은 뒤,
욕실로 이동해 샤워를 하고, 침실로 가는 최적의 동선을 완성했다.
편안한 가구를 배치해 잠깐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부티크 스타일 드레싱룸

안방의 벽면 한 쪽을 차지하던 붙박이장 대신, 침실 바로 옆에 마련한 넉넉한 드레싱룸은
마치 명품 부티크에 온 듯 쾌적하고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침실은 물론 욕실과도 연결해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하고,
별도의 분리된 공간처럼 구성해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까지 신경 썼다.

기존 붙박이장을 대체할 드레싱룸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다양한 옵션이다.
코디용 행어, 액세서리 함 등 여러 가지 옵션을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호텔식 고급 감성을 담은 건식 세면대와 분리형 욕실

e편한세상의 욕실은 호텔 스위트룸과 다름없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뛰어난 완성도가 돋보인다. 호텔처럼 각자 사용 가능한
2개의 건식 세면대는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해주며,
욕실과 샤워 부스, 변기가 각각 분리된 구조로 이루어져
위생적인 것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도 지켜준다.

e편한세상은 욕실을 또 하나의 방으로 완성하기 위해 세련된 분위기의 분리형 욕실을 선보인다.
이전에 안방에 딸려 있던 욕실은 보통 변기와 세면대, 샤워 부스 등을 한곳에 구성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e편한세상의 분리형 욕실은 한층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한다.

천연 대리석 마감과 스탠드 욕조가 어우러진 분리형 마스터 욕실. 여유로운 휴식과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누리며
최고급 욕실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파우더 룸을 겸용할 수 있는 고급 건식 세면대가 호텔 스위트룸의 감성을 전한다.

분리된 구조에 세면 및 양치가 가능한 2개의 세면대까지 겸비해 가족 간의 동선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아침 시간 활용을 돕는다.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원스톱 세탁 존

세탁처럼 평소에 자주 해야 하는 일일수록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e편한세상이 선보이는 원스톱 세탁 존에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빨래 건조대와 다림질 공간까지 보장된다. 애벌빨래부터 세탁,
건조까지 최소화된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 최상의 효율을 경험할 수 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가로로 나란히 배치할 수 있고, 손빨래와 다림질,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세탁 존. 실제 사용자의 불편함에 귀를 기울여 세심하게 설계했다.

여유롭게, 효율적으로!
현관 대형 팬트리

주거 공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꼽는다면 1순위가 바로 수납일 것. e편한세상의 대표적인 특장점 중 하나가 바로 대형 현관 팬트리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동선에 자리 잡아 무거운 물건을 힘들게 옮기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물건을 크기나 종류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선반 덕분에 보다 효율적이고 여유로운 수납이 가능하다.

필요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현관 팬트리.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자전거와 유모차 등 부피가 큰 물품까지 여유 있게 수납 가능한 대형 팬트리.
선반 높이 조절이 자유로워 다양한 물품을 계획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신발장에 신발 살균기를 갖춰 한층 위생적인 관리를 돕는다.
외부 바이러스의 유입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뉴 노멀 시대에 대처하는 현관의 쓸모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 위생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집 안에서도 이에 대처하는 현명한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
e편한세상은 지금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팬데믹 시대의 주거 해법을 발빠르게 제안한다.
외출 후 손을 소독하고 외부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은
이제 주거 공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외출 후 집에 들어서자 마자 손을 씻을 수 있는 건식 세면대.
의류 관리기 공간을 확보해 외출복도 곧바로 보관할 수 있다.

집 안으로 들인 로망, 테라스 라이프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집 안에 한 평 남짓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 반려식물을 키우는 이들이 많다.
e편한세상은 이러한 주거 트렌드에 맞춰 이에 최적화된 공간을 선보인다.
현관 정원이나 테라스는 반려동물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홈 가드닝의 로망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바비큐 파티나 오롯한 쉼을 위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테라스와 선룸은 휴식, 홈 가드닝, 파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최근 주거 트렌드에 최적화된 힐링 공간이다.

침실과 이어지는 테라스에는 식물을 키우거나 홈 트레이닝을 위한 공간을 꾸며
나만의 휴식 시간과 건강까지 누릴 수 있다.

진행 부계영(게스트 에디터) | 사진 박찬우 | 세트 스타일링 민송이·민들레

Evolution of Materials

친환경 소재부터 세련된 디자인과
내구성이 뛰어난 신소재까지,
'드림하우스 갤러리'에서는 DL E&C의
기술력을 고스란히 반영한 자재를 경험할 수 있다.
벽, 바닥, 가구를 구성하는 다채로운
마감재의 특성을 살펴보고,
요즘 자재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해볼 것.

1 PRECIOUS WHITE FANTASY.
2 ONYX & MORE WHITE PORPHYRY.
3 PALADIO NATURAL.
4 BETON BLA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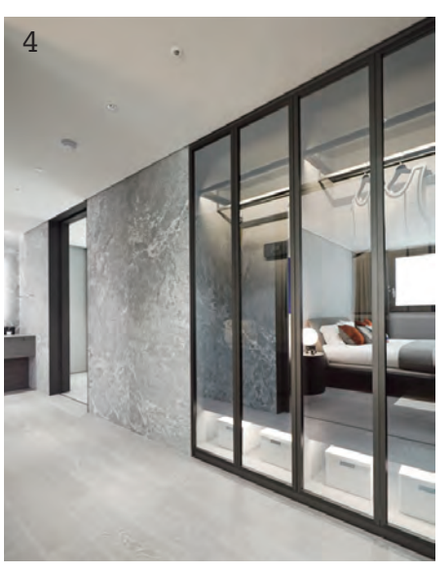
Eco-Friendly Surface

오염에 약한 천연 대리석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화강석의 단점을 보완한 세라믹 패널.
패턴을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고, 큰 사이즈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표면 경도가 뛰어나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고,
얼룩이 거의 남지 않아 실용적이다. 드림하우스 갤러리에서는
정교한 패턴과 고급스러운 질감을 살린 세라믹 패널을
만나볼 수 있다. 거실 아트 월은 흰 바탕에 짙은 마블 패턴으로
벽면을 우아하게 연출했고, 마스터 욕실 공간은 오닉스 패턴이
이어지도록 배치해 간결하고 통일성 있는 공간을 완성했다.

Unique Texture

소재 특유의 입체감 덕분에 공간을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는 패턴 글라스.
주로 상업 공간이나 레트로 인테리어에 쓰이던 패턴 글라스가
몇 해 전부터 주거 공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DL E&C는 가구, 중문 등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패턴을 개발하고, 패턴의 간격이나 유리의 명암을 변주해
중문, 샤워 파티션, 드레싱룸 등에 두루 활용했다.
접합 필름을 적용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PLAID AQUA GLASS.
2 CODA·LOCUS·VERSE·PROSE·OCTAVE GLASS.
3 OBSCURE BRONZE GLASS.
4 RIFLETTENTE CHIARO GLASS.
5 FLUTED GREY SATIN GLASS.



1

2

Hybrid Material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면서도 기능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신소재가 건축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기술과 트렌드를 모두 담아 새롭게 적용한 자재 3가지.

1, 2 **STONE LOOK PANEL** 스톤, 패브릭 등의 다양한 패턴을 입힌 디자인 패널.
낙서같은 오염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손상이 생긴 부분만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다.
3 **REHAU CRYSTAL PANEL** 아크릴 소재의 가구 패널.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할 뿐 아니라
군더더기 없는 디테일로 공간의 완성도를 높인다.
4, 5 **FLEX WOOD FLOORING** 고밀도 내수 보드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강화된 마루.
나무가 지닌 본연의 자연스러운 컬러와 결을 살린 것이 특징이며
충격과 물에 강해 관리가 쉽고 변형이 적다.

3

5

4

글 안서경 기자 | 사진 김동오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HOUSE

DL E&C가 집 그리고 그 집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빅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HOUSE'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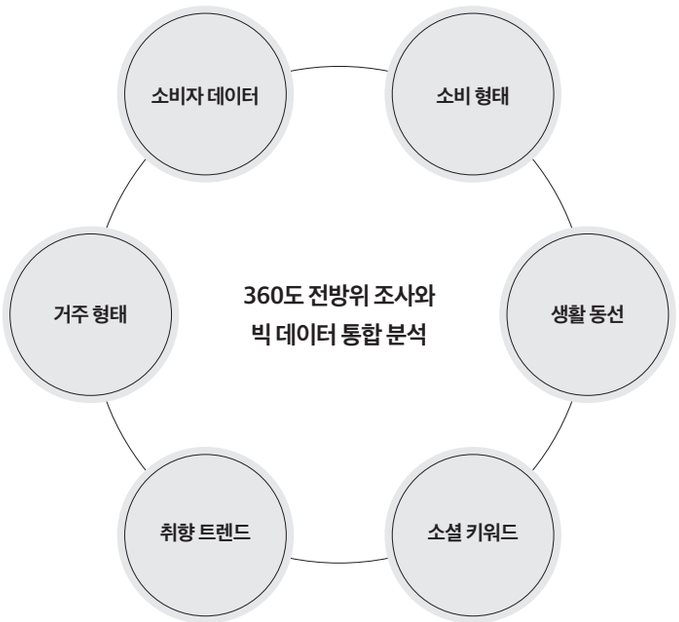
Creative Living + Customizing Space = C2 HOUSE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HOUSE

'아파트는 왜 항상 같은 구조와 평면을 고수하는 걸까?' '집에 내 취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집에 나만의 스타일을 담을 수는 없을까?' 아파트에 오래도록 살아온 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일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라이프스타일 패턴이 다양해져도 늘 비슷비슷한 구조와 평면의 집에서, 획일화된 취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 공간에 내 취향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집에 맞춰 살아가는 삶.
DL E&C는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한 빅 데이터 구축을 통해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할 수 있는 C2 HOUSE를 선보였다. 시대 흐름에 맞는 소비자의 니즈를 실제 주거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 고객들의 주거 형태와 라이프스타일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 덕분에 우리는 같은 아파트 안에서, 나만의 취향을 오롯이 담은 맞춤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C2 HOUSE는 이 시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디자인 차별화, 주거 최적화 등의 변화를 통해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주거 생활을 선사하며 많은 이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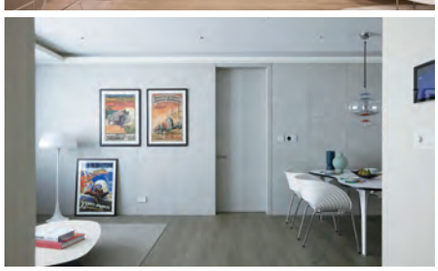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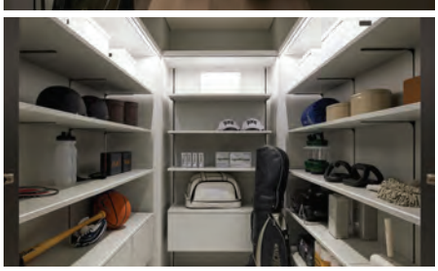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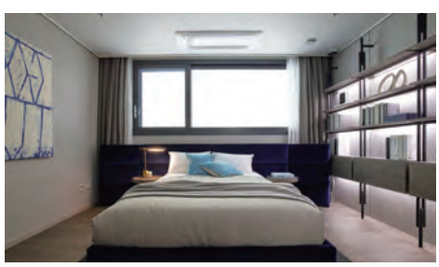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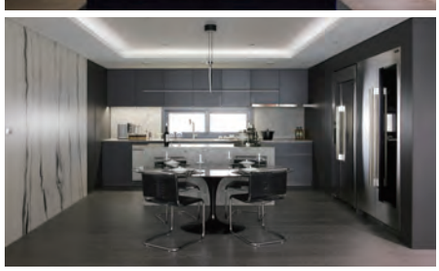


DL E&C는 지금까지 최고의 기술력과 집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집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정의해왔다. DL E&C의 '더 나은 집에 대한 고민'은 현재를 사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C2 HOUSE는 국내외 소비와 주거 트렌드를 비롯해 고객의 주거 형태, 취향 트렌드, 생활 동선, 소셜 키워드 등을 360도 전방위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빅 데이터 통합 분석을 통해 탄생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

C2 HOUSE는 디자인 차별화, 주거 최적화, 라이프스타일 맞춤의 3가지 큰 틀 안에서 새로운 주거 문화의 해법을 제시한다. 집 안의 어떤 공간도 쓸모없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 공간의 효율적인 기능을 고려해 설계하고 입주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여겨왔던 동선과 수납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진정한 의미의 꿈의 집을 완성했다. 독보적 기술력과 고객의 니즈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입체적인 주거 플랫폼, C2 HOUSE가 당신의 아파트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C2 HOUSE가 선보이는 새로운 주거의 기준



디자인 차별화

어떠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도 완벽한 배경이 되어줄 간결하면서도 세심한 디자인.

- '비움' 콘셉트로 최소한의 패턴만 적용해 때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캔버스canvas 디자인.
-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어져 시원하고 개방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확장된 아트 월.
- 답답한 세로형 대신 긴 가로 형태를 채택해 탁 트인 시야와 환기, 통풍을 두루 만족시키는 와이드 주방 창호.
- 입체적 미감을 더하고 층고를 한층 높아 보이게 하는 우물 천장과 울트라 슬림 조명.

주거 최적화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구나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한 공간 설계.

- 부피가 큰 물건과 다양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현관의 대형 팬트리.
-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어 한곳에서 세탁부터 건조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세탁 공간.
- 현대인의 달라진 평균 키와 고객 조사를 참고해 기존의 86cm에서 89cm로 3cm 더 높게 제작한 주방 싱크대와 상판.
- 조리 및 식사 준비 동선을 고려한 주방의 대형 팬트리와 주방 가구 수납공간.

라이프스타일 맞춤

가족의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맞춤 평면.

- 내력 벽체를 3개로 최소화함으로서 방과 방 사이, 거실과 방 사이의 벽체를 허물고 평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벽식 구조.
- 6인용 식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한 LDK 오픈형 구조의 다이닝룸.
- 실외기실과 세탁실을 후면에 배치하고 발코니를 과감하게 없애 보다 넓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방.
-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발맞춰 의류 관리기 공간을 따로 구성한 드레싱룸.

Global Developer

82년 역사의 '한숲정신'을 이어받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해온 DL E&C.
건설을 넘어 삶을 디자인하는 DL E&C의 역사적 행보를 돌아본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여수 이순신대교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디타워 광화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GT 타워

필리핀 RMP-2 프로젝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DL E&C는 1939년 부림상회라는 건설자재 판매 회사로 시작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과 1970년대 고도 산업화, 1980년대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고 현재는 20조 원 자산 규모의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 82년간 DL E&C가 보여준 행보는 남다르다. 국내 최초로 해외 건설을 수주해 외화를 획득했고, 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으며, 국내 최초로 주택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혁신의 역사를 기록해왔다. 경부·호남고속도로에서부터 서울 지하철, 세종문화회관, 국회의사당, 잠실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청계천, 광화문광장, 평창동계올림픽 스타디움, 이순신대교 등 국내 대표의 랜드마크 건축물 중 대다수가 DL E&C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DL E&C의 역사는 공동주택 건설을 기점으로 정점에 올랐다. 수많은 최초의 기록 중에서도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동주택 시공의 의미를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다. 신도시급 규모의 단지에서 생활 인프라 기획 조성을 통합적으로 이루어내며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로 그 역할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DL
E&C

'세상의 중심인 크고 푸른숲'을 의미하는 한숲정신을 이어온 대림大林. 창립 82주년인 올해 그룹명을 DL로 변경했다. 대림산업 건설사업부는 DL E&C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DL E&C는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디벨로퍼 중심의 토털 솔루션 사업자로 성장해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DL E&C는 이상적인 주거 문화를 담는 하우징 브랜드에서 그 저력과 내공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취향과 안목, 품격을 반영한 독보적인 하이엔드 주거 컬렉션 아크로ACRO와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해 라이프스타일 맞춤 공간을 선보이는 e편한세상은 주거 공간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한다.

하우징 브랜드 외에 삶의 형태에 맞는 공간과 프로그램 설계 등 논 하우징 프로젝트 역시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다양한 상업 및 문화 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오피스인 '디타워D Tower', 기업들의 공유 성장 플랫폼인 '디테크 타워D Tech Tower', 콘텐츠 기반의 복합 타운인 '리플레이스Replace'는 건설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탄탄한 기획과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담아내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주거·비주거 건축 분야 외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길이의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 자금 조달과 준공, 운영을 모두 아우르는 해외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디벨로퍼로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For Excellent Life

e편한세상이 걸어온 길이 곧 대한민국 브랜드 아파트의 역사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주거 가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이 전하는 '최고의 삶'.

20년간 변함없이 최고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아파트의 혁신이 되어온 국내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 e편한세상.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과 전문성으로 완성한 품질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차별화된 주거 철학을 바탕으로, 살아볼수록 매력과 만족을 주는 앞선 주거 공간을 만들어오고 있다.

각자 꿈꾸는 집의 기준은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집'의 본질을 지키고, 머무는 공간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이의 바람일 것. e편한세상은 모두가 꿈꾸는 주거의 미래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가장 편안한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수많은 '최초'의 기록도 남겼다. 2000년, 아파트 브랜드를 론칭하며 최초로 리빙 서비스 개념을 도입했고, 국내 처음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형 등 최첨단 혁신 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락한 주거 공간을 완성했다. 2019년에는 건설사 최초로 빅 데이터를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평면인 'C2 HOUSE'를 선보였다. 2020년에는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브랜드를 새롭게 단장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고급스러움과 차별성을 더해 'For Excellent Life', 즉 '최고의 삶을 선사하는 주거 브랜드'로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했다.

e편한세상

20년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상징해온 BI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브랜드명을 배제하고, 최상의 편안함과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오렌지 색상의 구름 모양을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해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독보적인 심벌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EXCLUSIVE DESIGN e편한세상은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생활의 필요와 쓰임에 꼭 맞는 주거 공간을 제안한다. 랜드마크로 손색없는 외관 디자인, 자연과 호흡하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 조경 공간 '드포엠dePOEM',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HOUSE' 그리고 공간의 배경이 되어줄 '캔버스 디자인' 등이 대표적인 예다.

EXPERT SOLUTION e편한세상은 기술력으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고의 기술과 전문성,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 컨스트럭션, 홈 IoT 기술, 안전, 에너지 절약, 건강, 편의 시스템 등 혁신적인 주거 솔루션을 선보이며 계속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주거 가치를 선사한다.

EXPERIENCE-DRIVEN SERVICE e편한세상은 최초로 리빙 서비스를 도입한 브랜드답게 아파트라는 물리적 공간의 속성을 넘어 매일 각 개인과 가족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파트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Smart eLife'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해 단지별 맞춤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Dream House Gallery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페어' 형태로 구성해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지막 발걸음까지,
마치 축제를 즐기듯 다채로운 공간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드림하우스 갤러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개하는 전시와 흥미로운 이벤트, 아트 컬렉션 등
'모두가 꿈꿔왔던 집'에 대한 로망과 환상을 다채로운 콘텐츠 속에 감각적으로 풀어냈다.

Dream Lounge & Store

본격적인 '꿈의 집'을 보기 전 대기하는 동안 화려하고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주며 투어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드림 라운지'.
같은 공간의 '드림 스토어'에서는 갤러리 투어의 감동을 더욱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굿즈 컬렉션을 판매한다. 꿈꾸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해줄 다양한 한정판 아이템들은
오직 드림하우스에서만 만날 수 있어 더욱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1 세심하게 꾸민 화려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과 다채로운 브랜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드림 라운지'.
2 TWB, 호랑, 이노홈, 센티멘탈, 스위치, 드미어 등 개성 있는 브랜드들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아이템을 개발했다. e편한세상의 감성을 담은 에코 백과 메시 백, 멀티 폰 케이스 스트랩 등도 선보인다.

1 모던한 어닝과 카펫으로 연출해 마치 부티크 호텔의 입구 같은 느낌을 준다. 방문객에게는 '드리머dreamer', 스태프에게는 '드림 커넥터dream connector'라는 명칭을 붙였다.
2 유럽풍의 웅장한 파사드와 화려한 조명으로 꾸민 웰컴 존.
3 유니크한 돔 형태의 구조물과 식물이 어우러진 갤러리 입구 옆의 테라스 가든. 자연스러운 인증 샷을 유도한다.

Welcome Zone

감성을 자극하는 테라스 정원과 호텔 프론트를 연상시키는 리셉션,
웅장한 유럽풍 파사드와 화려하게 꾸민 드림 라운지까지,
인증 샷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다채로운 공간이 입구에서부터 펼쳐진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드림하우스 갤러리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

Dream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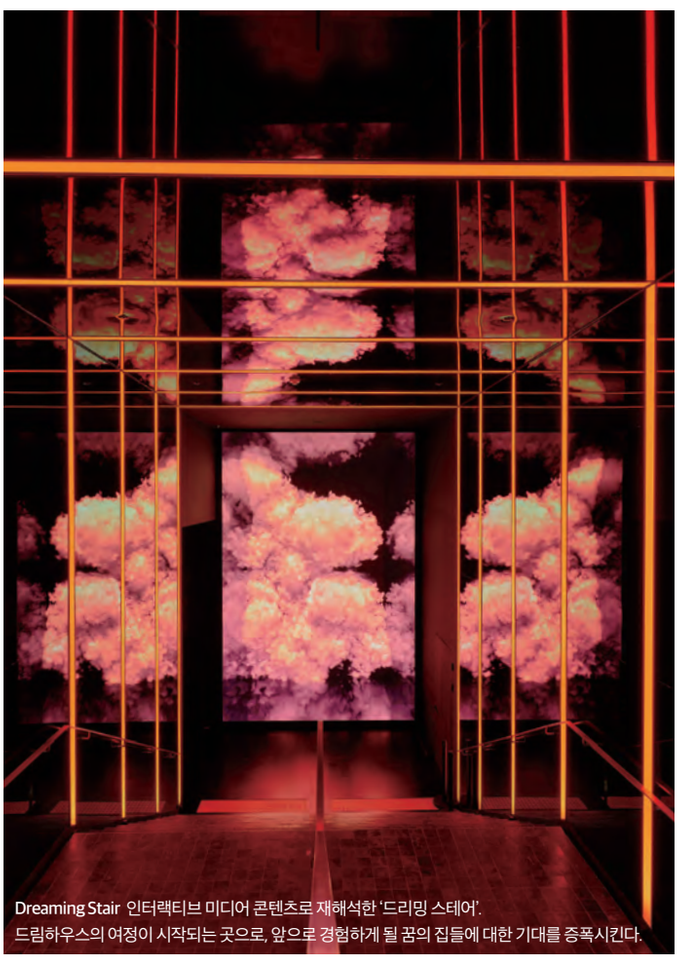
하우스 투어 이후 만날 수 있는 산뜻한 분위기의
'드림 스테이션'은 직접 꿈의 공간을 탐험하고 즐기며
풍성한 선물까지 받아갈 수 있는 '드림 콜라주' 이벤트가
시작되는 공간이다. 니치 향수 브랜드의 시향 존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Media Experience Zone

드림하우스 갤러리에는 다양한 미디어 체험 공간이 존재한다.
e편한세상의 브랜드 감성에 첨단 기술을 더해 탄생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아트들을 만나보자.

Dreaming Bridge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사일로랩과 함께한 미디어 체험 공간 '드리밍 브릿지'.
광섬유와 LED 매트릭스를 활용해 감각적인 빛의 세계로 안내한다.

Pre-Show 한층 진화한 e편한세상의 모습을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해 보여주는 공간.
눈 앞에서 실제 펼쳐지는 듯한 생생한 영상이 눈을 즐겁게 한다.



Dreaming Stair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로 재해석한 '드리밍 스테어'.
드림하우스의 여정이 시작되는 곳으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꿈의 집들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킨다.

Dream House
×
D Museum Art Collection

국내 문화·예술 트렌드를 이끌어온 디뮤지엄과 함께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곳곳에 배치했다.
모두가 아트 컬렉터인 시대, 관람객들에게 공간과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색적인 전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선사한다.

'Life on Floral Canva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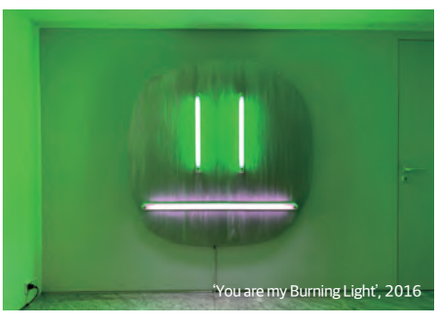
FLOWERBERRY 유리방 속에 다채로운 컬러의 꽃과 오브제가 한데 어우러졌다. 가볍고 유동적인 분위기를 통해 미지에 세계에 대한 설렘과 호기심을 표현했다. 플라워베리 김다정은 프리저브드 플라워나 드라이플라워 같이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을 지닌 꽃과 식물, 오브제 등을 활용해 감각적인 공간 연출을 선보여왔다. 전시 참여 및 상업 공간 협업, 매거진 화보 작업 등도 활발하다.

From Colour to Eternity, 2021

MAUMSTUDIO 종이를 수작업으로 붙이고 꽂아 갈대밭을 연상시키는 풍성하고 서정적인 산책로를 연출했다. 핑크빛 종이 갈대의 물결이 천장과 벽에 은은한 빛을 드리워 동화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마음스튜디오는 공간 연출과 그래픽 작업, 상품 및 제품 개발 등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디자인 그룹. 사용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따스한 감성의 디자인을 추구한다.

'All Eyez On Me', 2017

JAE HUH 허재영은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아트 & 디자인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 현재는 서울을 기반으로 디자인 및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패션 레이블 '스테레오 바이닐즈'의 공동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기도 하다. 그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카툰 캐릭터 같은 친숙한 요소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대중에게 큰 지지를 받아왔다. 하우스202에서 일상에 위트를 더하는 허재영의 작품들을 확인해볼 것.


'You are my Burning Ligh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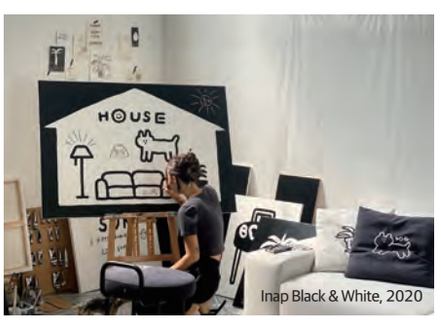
WON WOO LEE 이원우는 퍼포먼스로 시작해 조각과 설치, 페인팅, 사진, 영상까지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개성 있는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특유의 위트와 해학으로 비틀어 일상의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환기시킨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과 그룹 전시를 개최했고, 아티스트 그룹 '…좋겠다 프로젝트'와 'MLH'의 일원이기도 하다. 스튜디오401의 통로와 거실에 그의 작품을 배치했다.

The Shaft of Light, 2021

DONG SIK ROE 노을빛으로 물들어가는 구름, 봄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거대한 민들레 홀씨,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 등.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에 아기자기한 상상력을 더한 노동식의 설치 작품은 관객들을 기분 좋은 추억과 따스한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작품의 주요 재료인 솜은 부모님이 운영했던 솜틀집과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우스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기억의 빛을 머금은 노동식의 서정적인 구름과 하늘을 마주할 수 있다.

'Leaf Walk', 2021

WANDA BARCELONA 수 천 개의 등나무 꽃송이가 무성한 정원을 이루며 관람객들을 초현실적인 세계로 인도한다. 흰색에서 색색으로 이어지는 그러데이션 효과는 영원을 상징한다. 완다 바르셀로나는 건축가 인티 벨 레즈 보테로Inti Velez Botero와 디자이너 인 다니엘 만치니Daniel Mancini, 아이리스 조발Iris Joval이 2007년에 결성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다. 종이와 판지를 활용해 독특한 공간을 연출하는 초대형 설치 미술을 선보인다.



Inap Black & White, 2020

INAPSQUARE 박인아와 최필선이 이끄는 이나피스퀘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만듭니다'라고 자신들을 설명한다. 무심한 듯한 선과 면, 특유의 비정형적인 텍스트가 어우러진 이들의 감각적인 드로잉은 이미 많은 팬들의 지지와 더불어 패션 및 리빙 제품으로도 인기가 높다. 이번에 드림하우스와 협업한 이나피스퀘어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집'이라는 공간을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특별한 공간으로 표현했다.

글 부계영(게스트 에디터) | 사진 박찬우

Perfect M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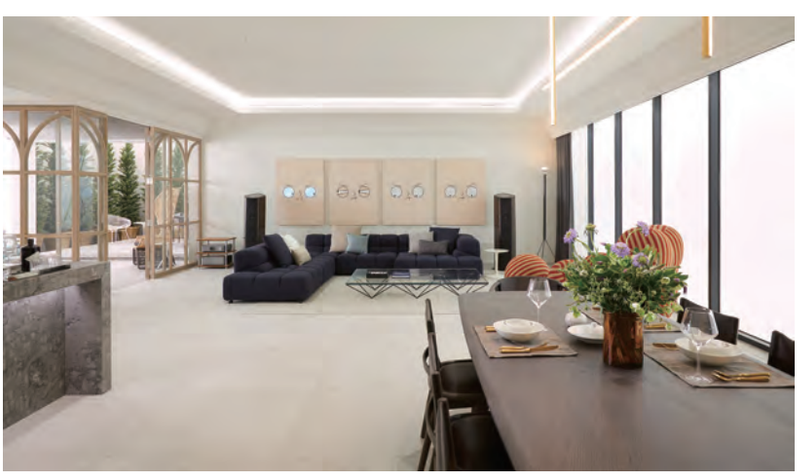
똑같은 외관, 똑같은 구조의 집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집에 나만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담아 살아갈 순 없을까.
e편한세상이 사는 이의 취향과 사는 방식에 꼭 맞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평면을 제안한다.

초등학생 아이 키우랴,
맞벌이하랴 바쁜 30대 부부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30대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좋은 집은 어떤 모습일까. 한창 어지르기 좋아하는 나이대의 어린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맞벌이까지 하다 보면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변을 말끔하게 정돈하는 일상이 힘들어진다. 다채로운 수납 기능을 갖춘 대형 현관 팬트리, 동선을 효율화한 원스톱 세탁 공간, 전면 발코니를 확장한 안방 등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법이다. 20평형대의 작은 규모임에도 공간 활용도가 높고 쾌적한 생활이 보장된다.

웰니스를 추구하는
40대 3인 가구 라이프스타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예술적 취향을 지닌 40대 가구.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따로 또 같이'의 라이프스타일이다. 거실과 주방, 다이닝룸이 하나로 이어진 오픈형 구조가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한 소통을 돕는다. 오디오 룸 등 취미 생활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분리형 욕실은 부부간에도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준다. 외부 바이러스와 먼지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현관 건식 세면대와 스타일러, 신발 살균기 역시 웰니스를 위한 필수 요소다.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는 3인 가족

50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족. 아트 작품을 수집하고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으로 음악 감상을 하며, 때로는 지인들과 와인 홈 파티를 즐기는 이들은 각자의 다양한 문화 경험이 라이프스타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희망한다. 60평대의 이 공간은 가족과 외부인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구조다. 침실과 취미 생활을 위한 멀티룸, 분리형 욕실과 드레싱룸이 방 안에 또 하나의 방 형태로 설계되어 자녀가 독립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운동 마니아이자 취미 부자,
섬세하고 감각적인 취향의 싱글 남성

운동 마니아인 동시에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 싱글 남성. 친구들 불러 요리해주는 일을 즐기고, 재택근무 시간도 길어 그에 따른 살림살이가 여간 많은 게 아니다.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히든 타입 붙박이장'. 취미 생활을 위한 팬트리, 재택근무 가능한 워크 스테이션, 미니 홈 바와 주방, 냉장고와 수납 등의 모든 것이 히든 타입 붙박이장 뒤에 숨어 있다. 필요할 때마다 열어 사용하고 닫아두면 작은 평수의 스튜디오 타입도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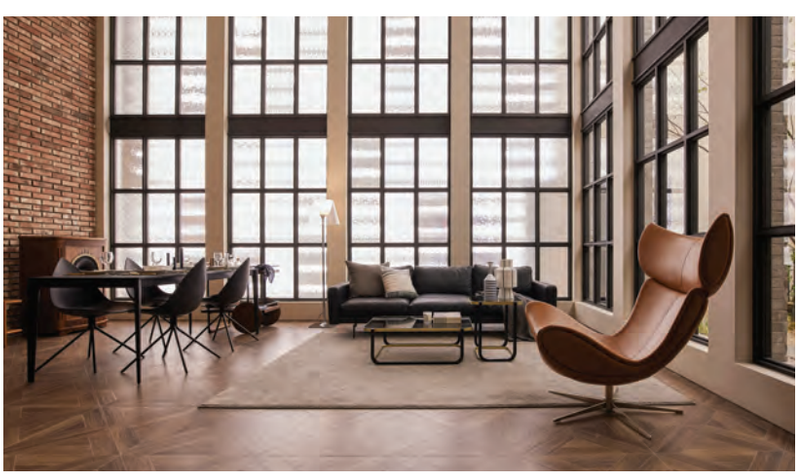
요리부터 각종 쇼핑까지
집에서 모든 일상을 해결하는 싱글 여성

집 안에서 요리하고, 먹고 놀고 쉬는 걸 즐기는 싱글 여성. 식재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쇼핑을 즐기지만 현관 바로 앞에 위치한 대형 팬트리 덕분에 무거운 박스를 힘들게 나를 필요도, 수납이 모자라 애를 먹을 필요도 없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와 식사까지 모두 가능한 대형 아일랜드를 바 테이블처럼 활용할 수 있고, 반오픈 형태의 주방을 안쪽에 숨겨 지저분해 보일 걱정도 없다. 침실에는 반유리 타입의 벽체를 세워 거실과 자연스레 이어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요리, 파티, 음악 애호가인
뉴요커 감성의 딩크 부부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뉴요커 감성의 딩크 부부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가 시간에는 친구들과 홈 파티를 즐기고, 정원에서는 각종 식물을 가꾸고, 테라스에서 홈 트레이닝을 즐기는 삶! 복층형 구조의 스튜디오 타입은 1층과 2층의 명확한 구분과 상부층 5m에 이르는 높은 천장이 특징이다. 거실 한쪽 벽면의 벽돌 마감과 레트로 패턴의 창호가 부부의 섬세한 감성을 만족시킨다.

글 부계영(게스트 에디터) | 사진 박찬우



드림하우스 갤러리 커뮤니티 공간에 조성된 e편한세상 드포엠 가든.

Excellent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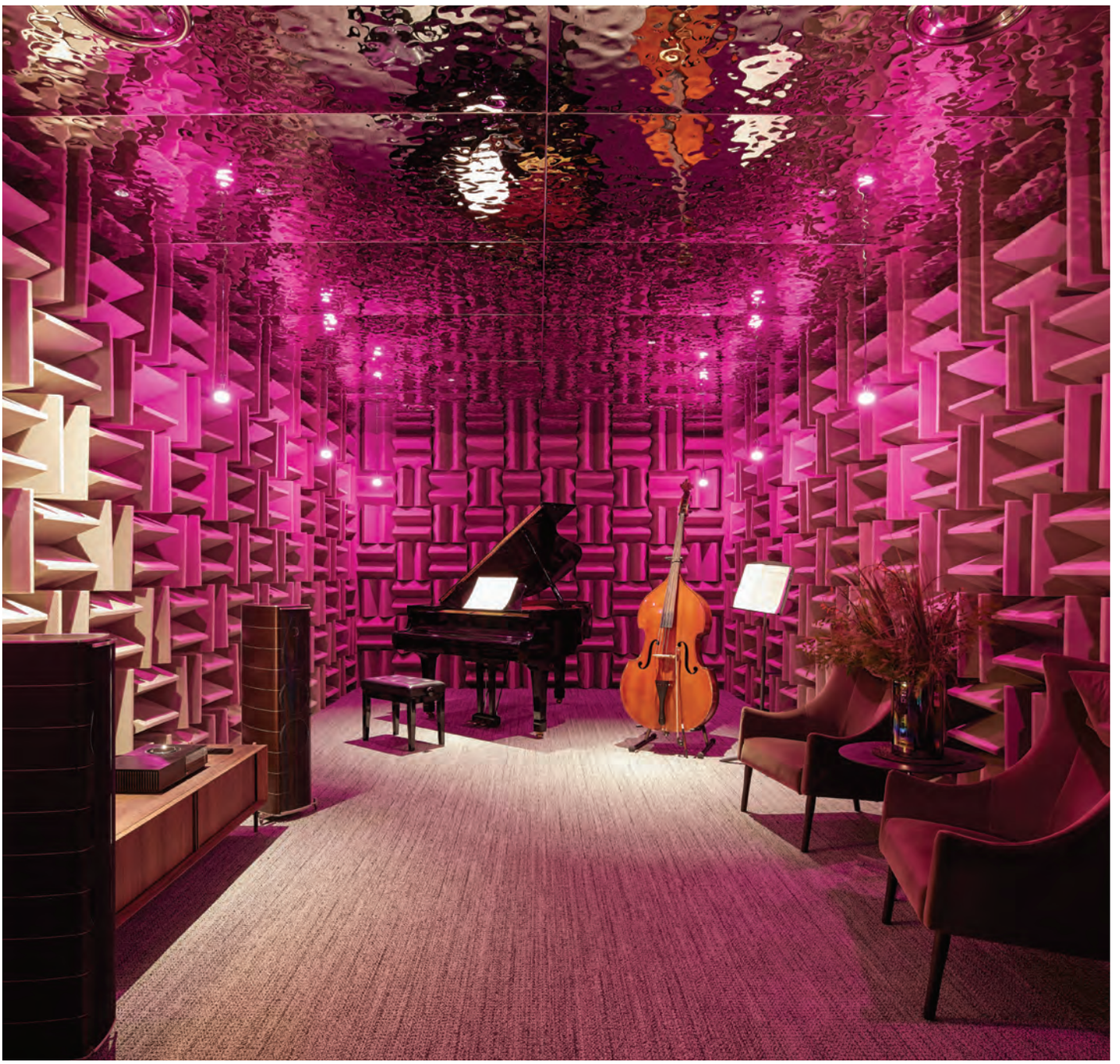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뉴 노멀'의 시대는 우리에게 불편함도 주었지만 오로지 나의 시간에 집중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찾는 계기 또한 제공했다. 뉴 노멀 시대에 맞춰, 거주자들의 감성과 편의를 만족시키고
꿈꿔왔던 여가 라이프를 실현해줄 e편한세상의 완벽한 공용 커뮤니티 쇼룸을 만나보자.

한 차원 앞선 프리미엄 조경, 드포엠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른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사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지면서, 일상의 급격한 변화와 맞닥뜨린 현대인에게 집에서 누리는 퀄리티 있는 여가 생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유 경제가 공간에 적용되면서 '위 두 We Do'의 개념이 강력하게 떠오른 것이다. 이제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여럿이 무리를 지어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믿을 수 있고 취향의 결이 같은 몇몇 사람들이 시설이 잘 구비된 안전한 공간 안에서 여가와 취미 생활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일상이 변화했다. 이렇듯 뉴 노멀의 시대를 직면한 지금, 아파트 내의 공용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드포엠dePOEM은 e편한세상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다. 기존의 조경 공간이 전통적 공원의 형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산책과 휴식에만 중점을 두었다면 e편한세상은 현대인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두루 담을 수 있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조경 구성을 차별화했다. '드포엠'이라는 이름은 DL E&C와 e편한세상의 이니셜을 합친 'de'와 e편한세상 조경 공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시poem'적인 경험을 함축적으로 결합한 것.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획일화된 아파트 조경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서정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 그윽한 향기의 벌개미취부터 달큼한 향기를 전하는 애기동백, 백당나무, 에키네시아, 노란톱풀, 호랑가시나무, 히어리 등 식물 구성부터 신선하고 다채롭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드포엠이 안온한 위로를 건네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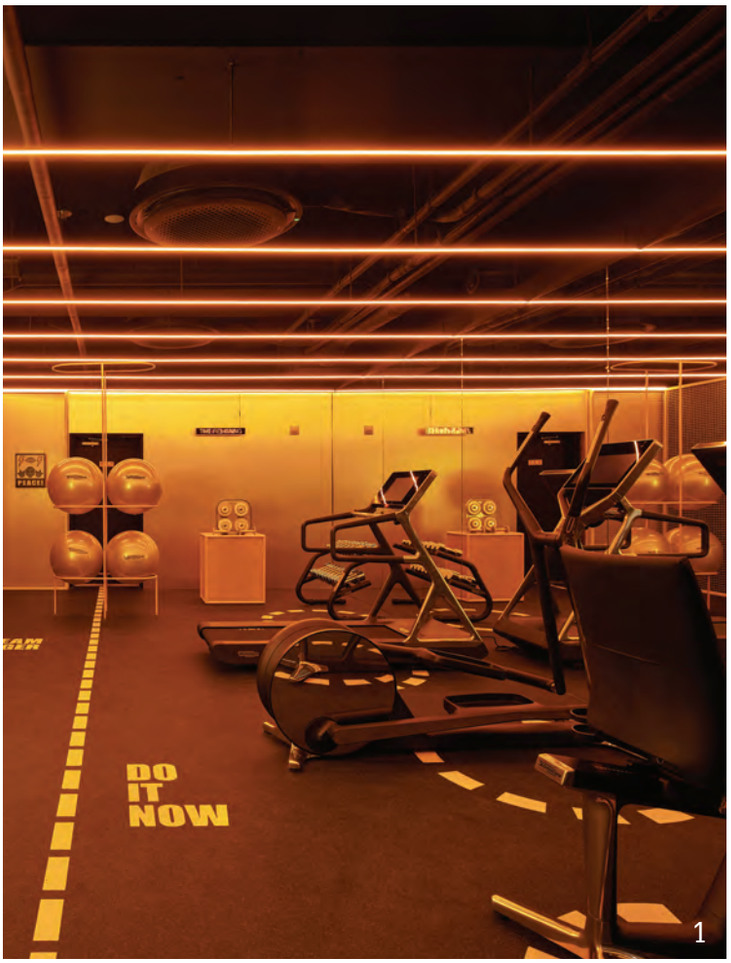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생생한 음악 감상이 가능한 컬처 스튜디오. 때에 따라 연주회도 개최할 수 있다.

꿈꿔왔던 여가 생활을 실현해줄 공용 커뮤니티

드림하우스 갤러리에서는 뉴 노멀 시대에 맞춰 한 단계 진화한 e편한세상의 공용 커뮤니티 시설도 체험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만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시설마다 최적의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무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특히 팬데믹 시대에 꼭 맞는 프리미엄 언택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 전, 키오스크 화면을 통해 회원 등록과 예약, 이용 내역, 이용료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운영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콤팩트 피트니스에는 최고급 운동 장비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쾌적한 공간에서 진정한 웰니스 라이프를 누리기에 더할 나위 없다. 런드리 라운지는 공유 세탁 공간으로, 대기 시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아트 퍼포먼스를 감상하거나 놀이도 할 수 있다. 완벽한 방음 및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컬처 스튜디오도 주목할 만하다. 음악 감상은 물론 작은 연주회도 가능해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스크린 골프룸은 3면 스크린을 갖춰, 실외에서 골프를 즐기는 듯한 다이내믹한 경험을 선사한다. 글 부계영(게스트 에디터) | 사진 박찬우



1 최고급 운동 장비를 다양하게 구비한 콤팩트 피트니스. 키오스크를 통해 회원 등록과 예약,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스크린 골프 룸은 라운지 소파와 미니 바를 갖춰 마치 호텔 룸을 연상시킨다. 3면 스크린을 갖춰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골프를 즐기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선사한다.
3 공유 세탁 공간인 런드리 라운지, 세탁이 이루어지는 동안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Dreaming Creators

서로 다른 콘셉트로 꾸민 6개의 집부터 각종 체험 공간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드림하우스 갤러리'.
'과연 어떤 이들이 만들었을까' 궁금했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보는 것이 좋겠다.
'꿈의 집'을 실현 가능한 '현실'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DL E&C의 콘텐츠플래닝팀과 상품개발팀을 만나
드림하우스 갤러리 프로젝트와 주거 문화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콘텐츠플래닝팀
브랜드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들

콘텐츠플래닝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DL E&C의 브랜드와 고객이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기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방안을 모색하지요. 사전 조사와 콘셉트 기획부터 실행,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 팀으로 모은, 타사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360도 전방위 조사와 입체적인 빅 데이터 통합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브랜드 경험 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업무 단계별로 유관 부서들과 협업하면서

브랜드 콘텐츠 전략 파트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화된 콘셉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획자들이 모여 있다. (왼쪽부터) 김민영 CP, 이은영 CP, 강현영 CP, 고경진 CP, 전윤성 CP, 김민석 CP, 김정명 CP, 김윤전 상무, 노종원 CP, 오은경 CP.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브랜드 경험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의 A부터 Z까지 저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지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네요.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해석하고 매 순간 가장 매력적인 경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팀인 만큼 브랜드 매니지먼트, 광고 기획,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유통 마케팅, 공간 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 등 다방면의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서로의 영역을 가르지 않고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다채로운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해석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나갑니다.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식 기획·제작·실행에서 벗어나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팀이라 할 수 있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부장, 차장 등의 직급을 타파하고 서로를 CP(Contents Planner)라 부르는 것도 저희 팀만의 특징입니다.

드림하우스 프로젝트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드림하우스 갤러리'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2020년 e편한세상 브랜드가 탄생 20주년을 맞아 전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쇼룸을 만들어 이를 알리고 싶었어요. 모터쇼에서 콘셉트 카를 보여주듯, 브랜드가 제안하는 모든 요소를 담은 쇼케이스 형태로 기존의 주거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마케팅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드림하우스 갤러리 기획의 출발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런 구조와 인테리어로 꾸미며 살고 싶어!'하는…. 저희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바람을 바탕으로 '모두가 꿈꾸는 집을 경험하는 최고의 공간, 드림하우스Dream House'라는 콘셉트를 도출했고, 꿈이 실현되는 집과 그 안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홍보관이라는 딱딱한 명칭 대신 콘셉트를 그대로 살려 '드림하우스 갤러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드림하우스 갤러리를 통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들은 감각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감지하고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브랜드에 호감을 느끼며 반응합니다. 저희는 이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통한 브랜드 경험의 확장'이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의 폐쇄적인 건설사 홍보관을 '브랜드 쇼룸' 개념으로 확장해 방문한 소비자들이 특별함을 느끼고 이것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뻔하고 일방적이던 기존 건설사의 방식에서 벗어나 라이프스타일 및 일상 공간에 대한 이해와 확장을 돕고 여기에 e편한세상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내 관람객들이 '내가 살

고 싶던 곳이 바로 이런 집이야!'라는 생각을 하며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e편한세상을 떠올릴 수 있게 말이죠.

드림하우스 프로젝트에서 콘텐츠플래닝팀이 맡은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저희 팀에서는 갤러리의 전체 콘셉트 기획부터 각 공간의 구현, 인터랙티브 경험 콘텐츠 개발, 로고와 리플릿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굿즈 상품 개발, 브랜드 제휴, 언택트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까지 모두 관할했습니다. 고객들이 갤러리 곳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적 요소에 누구나 꿈꾸는 집과 라이프스타일의 로망을 담아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페어처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속 뷰티·가전·리빙 제품을 곳곳에 배치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죠. 팬덤을 보유한 인디 브랜드들과 함께 고객들의 소장 욕구를 일으키는 한정판 브랜드 굿즈도 기획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브랜드들의 만남으로 신선함을 제공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입혀 e편한세상만의 스토리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진 만큼, 단순 모델하우스를 넘어서는 매력적인 경험을 디자인하는 게 관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문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더욱 인상적으로 경험하려면 규모와 동선에 맞춘 설계를 넘어 무언가 더 특별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나 '리빙디자인페어' 등을 참고해 관람객들이 보물찾기처럼 직접 공간 곳곳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며 체험하는 시나리오를 떠올렸죠. 고객들이 입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 축제를 즐기듯 자연스럽게 브랜드와 호흡할 수 있도록 곳곳마다 '모두가 꿈꾸는 집'에 대한 환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적 요소들을 배치했어요. 퇴장 시에도 방문한 공간들을 담은 아날로그 감성의 콜라주 북과 선물,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드림하우스 갤러리를 100% 즐기는 법에 대해 팁을 주신다면? 감성 가득한 테라스 정원이나 강렬한 색감의 리셉션 데스크, 웅장한 파사드와 드림 라운지 등 투어 시작 전부터 '인스타그래머블'한 포토 존이 가득합니다. 체크인할 때 제공하는 리플릿을 통해 드림하우스의 굿즈 아이템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무엇보다 꿈의 공간을 탐험하며 미션 카드를 태그하는 '드림 콜라주' 이벤트에 꼭 참여해보길 바랍니다. 미션 성공 시 한정판 에코 백에 담긴 스페셜 기프트를 기본으로 제공하거든요. 숨겨진 또 하나의 이벤트로, 매일 단 한 분을 랜덤 추첨해 50만 원 상당의 럭키 박스를 추가로 드리는 행운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디자인 전략 파트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 고객이 접하게 되는 모든 브랜드 경험 콘텐츠 디자인을 완성한다. (왼쪽부터) 정용하 CP, 김윤전 상무, 박주희 CP, 문혜미 CP, 김기한 CP, 임종현 CP.

드림하우스 프로젝트팀 이번 드림하우스 갤러리의 A부터 Z까지 브랜드 경험 디자인의 완성을 위해 총괄 디렉터인 김윤전 상무를 필두로 기획과 디자인 담당자들이 하나로 모여 완벽한 협업을 보여준 드림팀. (왼쪽부터) 김기한 CP, 오은경 CP, 김정명 CP, 김민영 CP, 박주희 CP, 임종현 CP, 김윤전 상무, 김민석 CP, 문혜미 CP, 정용하 CP.

DL E&C 상품개발팀
e편한세상의 실체를 만들어가는 드림팀

상품개발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작으로는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있나요? 상품개발팀은 DL E&C의 주거 상품 전체를 디자인하는 팀입니다. 건축·익스테리어·조경·인테리어·전기·설비·제품 디자인·사이니지 등 e편한세상과 ACRO 같은 주거 상품 브랜드의 모든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죠. 2019년 이후만 한정 지어 대표작을 소개한다면, 2019년 하반기 C2 HOUSE 론칭, 2020년 상반기 ACRO 갤러리 건립, 2020년 하반기 부산 드림하우스 건립, 2021년 초 ACRO SEOUL FOREST 준공, 2021년 상반기 한남 드림하우스 갤러리 건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틀에 박힌 구조에 대해 많은 사람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거주자가 꿈꾸는 공간이란 결국 자신들이 원하고 상상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그 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구현할 수 없기에, 그들이 꿈꾸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아파트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작가로서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기보다는 그 꿈을 해석해 '꿈의 공간'을 제안하는 큐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상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인 25평·34평처럼 면적의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삶에 어떠한 것이 필수적 기능이고 어떠한 것이 선택적 기능인지 명확히 구분해 영역을 나누고, 쓸모없거나 이용되지 않는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화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평면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평면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를 'C2 HOUSE'라고 부릅니다.

이번 드림하우스 갤러리에 바로 그 맞춤형 평면 C2 HOUSE가 적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C2 HOUSE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선 C2 HOUSE의 C2는 모두가 창의적으로 사는 생활 'Creative Living'과 서로 다른 성향과 개성에 맞춰 사는 공간 'Customizing Space'의 합성어입니

다. 이제까지 집에 나를 맞춰왔다면, 이제부터 집을 나에게 맞춘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라이프스타일의 니즈를 반영해 스타일, 구조, 마감, 설계까지 차별화한 입체적 공간 설계라는 점이고, 둘째는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성이 자유롭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채광과 환기에 최적화되어 시원한 개방감이 느껴지며, 넷째로는 기존 아파트에 살며 불편한 줄도 몰랐던 공간까지 세심하게 설계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편한세상만의 기술, 상품, 디자인과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으로, 똑같은 아파트에서도 가족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각기 다른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드림하우스 갤러리 내의 공간 중 가장 만족스럽고 집에 적용했으면 하는 공간은 무엇인가요? 최근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이슈에 대응해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세균 및 바이러스를 케어할 수 있도록 현관에 구현한 항바이러스 패키지가 가장 핫한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전신 청소기로 온몸의 먼지를 털어내고, 신고 있던 신발은 벗어서 신발 살균기에 넣고 소독을 합니다. 신발을 벗고는 세정제로 깨끗이 손을 씻어 바이러스를 털어내고, 바깥공기에 오염된 겉옷은 스타일러에 넣고 바로 세척을 하게 만든 공간입니다.

DL E&C는 과거에도 'C HOUSE', 'D HOUS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해왔는데요. C2 HOUSE의 후속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C2 HOUSE가 현재 DL E&C의 가장 진화한 버전의 평면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 플랫폼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4년에 한 번 주기로 풀 체인지를 하고 2년에 한 번 주기로 페이스 리프트를 하는 것처럼, e편한세상 또한 2019년 상품 론칭 2주년이 되는 올해 하반기 페이스 리프트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며, 론칭 4주년이 되는 2023년에는 새로운 버전의 e편한세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9년 분양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e편한세상 운정 어반 프라임' 등 C2 HOUSE 플랫폼을 적용한 단지들이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입주 후 고객들이 사계절을 다 겪고 나서 평가를 받아야 냉정한 리뷰가 가능하며, 거주 후 평가를 실시해 상품에 대한 사용 소감과 새로운 상품에 대한 가정을 검증받은 뒤 후속작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드림하우스 갤러리' 프로젝트는 기존의 작업과 어떻게 달랐나요? 사실 그동안에도 체험형 주택 전시관에 대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C2 HOUSE 론칭 이후 e편한세상 견본 주택에 이케아식 비교 체험 공간을 구성했고, ACRO 갤러리에는 미세먼지 및 층간 소음 등 기술적 요소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으며, 부산 드림하우스에는 이번 드림하우스 갤러리에도 반영한 영상 체험 존을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이번 드림하우스 갤러리의 체험 공간은 그동안 시도의 총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 세대뿐만 아니라 조경과 커뮤니티 등 모든 영역에 걸쳐 e편한세상의 상품을 마치 테마파크 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드림하우스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봐주었으면 하는 것, 혹은 경험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굳이 고르자면 국내 주택 전시관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소형 주거 타입의 스튜디오 401~403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조경 상품 공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객들은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단위 세대뿐 아니라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더불어 커뮤니티와 조경 부분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눈

건축 파트 건축, 익스테리어 등 건축과 관련된 주거상품요소들의 설계 및 디자인을 완성한다.
(왼쪽부터) 전새별 대리, 이승민 차장, 강창우 차장, 오정훈 부장, 김택구 차장, 주홍엽 차장, 윤장근 부장, 선정수 대리, 장현철 차장.

높이를 맞춰 변해가는 e편한세상의 상품 철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언급하신, 1~2인 가구 타깃의 스튜디오 401~402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기획한 공간인가요? 1~2인 가구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기에 '아파트'라는 상품은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5평 아파트여도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가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 좁은 거실에 좁은 주방과 방들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하게 공간을 구획해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 401의 경우 20평대지만 1.5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스튜디오 402의 경우 30평대지만 2룸의 구조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넓은 거실, 제대로 된 침실과 드레싱룸처럼, 앞으로 1~2인 가구의 니즈에 맞는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림하우스를 설계하면서 유지했던 전체적인 테마, 톤앤매너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요소를 하나로 묶는 통일성이었습니다. e편한세상은 '캔버스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요소가 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라이프스타일을 더 잘 표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테리어 디자인은 마치 유화의 캔버스처럼 배경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도 하나하나의 요소는 화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차분히 뜯어보면 전체의 조화를 해치지 않습니다.

드림하우스 갤러리를 둘러보며 인테리어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 차원에서 이런 인테리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할 계획도 있나요? 공간의 가변성을 극대화한 C2 HOUSE 플랫폼을 이용해 고객의 디자인 감성과 기능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 선택형 상품의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컨셉으로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 따라 각 공간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올해 하반기 첫 번째 분양인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리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스튜디오를 지나 만나는 공용 커뮤니티 센터 역시 드림하우스의 백미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e편한세상에도 이런 공간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당연히 실현 가능합니다. 단지 공동주택 단지별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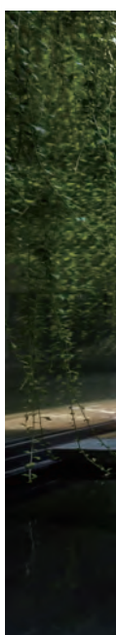
글 박지혜(게스트 에디터) | 사진 김동오

인테리어 파트 세대와 커뮤니티 설계 및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는 주거 상품을 완성한다. (왼쪽부터) 서인희 차장, 이선영 차장, 최문선 차장, 엄준석 차장, 최윤경 부장, 이시경 차장, 차재윤 부장, 김경아 차장, 선진영 부장, 박찬박 차장.

개발 파트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해 플랫폼뿐만 아니라 조경, 전기, 설비, 제품 디자인, 사이니지 등 주거 상품 요소들의 디자인을 완성한다. (왼쪽부터) 엄주용 대리, 진민성 부장, 김화영 부장, 조선 대리, 김중호 차장, 윤국현 차장,정성호 부장, 김남근 차장.

CGI by Binyan Studios

호주 브리즈번에 짓는 '어반 포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푸른 주거 건축물을 표방한다.



지금 알아야 할 주거 건축 트렌드 5

집은 패션이 아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쉬는 곳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유행에 익숙지 않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변치 않는 진리라고 했던가.
거대한 잠수함처럼 은밀하고 위대하게 움직이는 주거 건축의 경향성을 확인해보자.

More Greenery

요즘 건축을 지배하는 이슈는 '그리너리greenery'다. 과거에는 공간의 빈자리를 메우는 부차적인 요소로 여겼지만, 이제는 건축의 일부가 되었다. 팬데믹까지 벌어지자 녹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주거 건축은 변곡점을 완전히 넘은 양상이다.

시드니에 기반을 둔 코이치 타카다 아키텍츠는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보다 높고 거대한 30층짜리 친환경 주거 빌딩을 올해 호주 브리즈번에 준공할 계획이다. '어번 포레스트Urban Forest'란 이름의 이 건물 전면에는 1000그루의 나무가 계단식으로 식재되고, 내부에는 브리즈번의 토착종 등 2만 그루 이상의 다양한 식물이 채워진다. '세계에서 가장 푸른 주거 건축물'을 지향해 시멘트를 40% 줄인 특수 콘크리트로 짓고 돌과 벽돌 등은 재활용 재료를 쓰거나 현지에서 조달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다.

뉴욕 허드슨 야드의 '베슬Vessel'을 만든 영국의 헤더윅 스튜디오는 첫 주거 프로젝트로 싱가포르에 '에덴Eden'을 세웠다. 20층짜리 아파트 중앙에는 식물을 품은 유기적인 껍데기 형태의 발코니가 건물 위부터 아래까지 흘러내리듯 구축됐다. 비 온 후 풍기는 식물 내음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파문은 입주민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단독주택에서 그리너리는 곧 자연으로 환원된다. 교차 통풍을 통해 자연 환기를 극대화하고, 물까지 끌어들이며 자연과 공존하는 풍요로운 주거 공간을 실현한다. 미아 디자인 스튜디오의 '스카이 하우스Sky House'와 '빌라 탄 진Villa Tan Dinh'이 대표적이다. 스카이 하우스는 집을 가로로 쪼개 한쪽은 태양, 바람, 물, 나무, 공기에 내어주고, 나머지 반에 조밀한 계획으로 생활 공간을 만들었다. 집 안에서 자연의 변화를 종일 체감할 수 있다. 빌라 탄 진은 식물과 물, 햇빛을 가득 채워 집과 정원의 경계를 없앴다. 자연의 변화를 주거 공간에서 즐기는 두 곳 모두 '세계건축상World Architecture Community Awards'을 받았다.

© Oki Hiroyuki 1

© Hufton+Crow 2

© Oki Hiroyuki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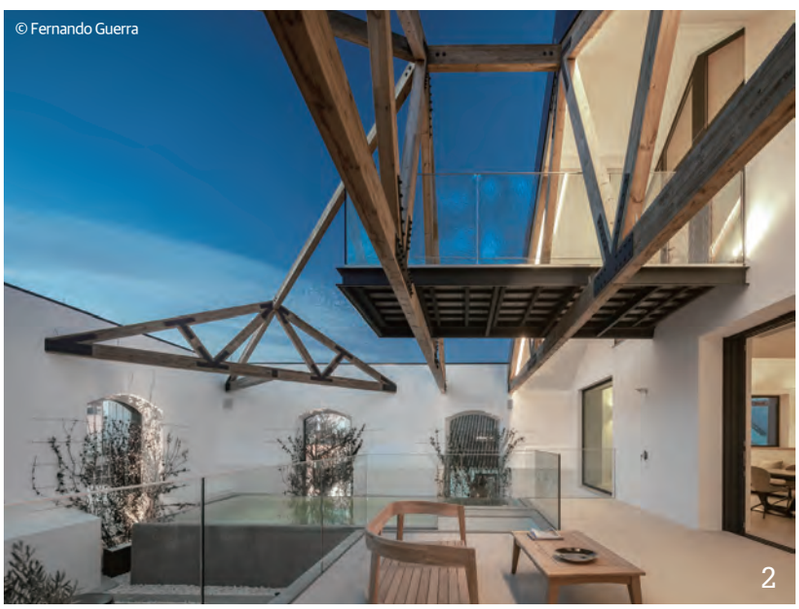
1 물, 흙, 나무 등 자연이 집으로 들어온 '빌라 탄 진'의 모습.
2 헤더윅 스튜디오의 '에덴' 지상층은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전형이다.
3 자연에 집 반쪽을 내준 '스카이 하우스'는 실내가 마치 숲 같다.

Renovation with Originality

지금껏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오래된 공간은 경제 논리에 눌려 철거의 희생양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건축물에 축적된 시대적 맥락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레노베이션은 옛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부상했다. 수백 년간 서민들이 모여 살던 중국 베이징 곳곳의 옛 골목길, 후퉁은 그 최전선이다. '치셰 코트야드Qishe Courtyard'는 중국 화베이 지역의 전통 가옥 쓰허위안이 밀집한 후퉁의 매력을 한껏 살렸다. 경사형 지붕이 특징인 작은 쓰허위안 7채와 안뜰 3곳이 뒤섞인 500㎡가 한 세대를 위한 주거 건물 3동과 안뜰 3곳으로 재탄생했다. 보존, 복원, 재생, 변화, 탄생 등 레노베이션이 건드릴 수 있는 섬세한 결을 온전히 다룬 범례와도 같다. 기본적인 나무 대들보와 중화민국 시대(1912~1949)의 특징인 아치형 문틈을 제외하고 심각하게 손상된 지붕, 벽, 문, 창문과 더불어 건축 폐자재나 잡초로 무성하던 안뜰을 소나무와 회색 벽돌 등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 교체했다. 여기에 유리벽과 유리벽돌, 적층 대나무판 등 현대 재료를 과감하게 적용해 아찔할 정도로 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통합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기둥을 세운 후 베란다로 이어지게 했고 투명한 곡면 유리를 전면에 사용했다. 자유롭게 호를 그리며 연결되는 통유리벽은 건물 내부와 조경, 지붕, 하늘까지 한 화면에 담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집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기능에 따라 3곳으로 분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공사 중 나온 돌조각·항아리·맷돌로 계단·화분·장식품을 만들고 목제 폐기물은 의자로 제작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했다.

포르투갈 라구스에 위치한 '카자 보난사Casa Bonança'도 흥미롭다. 오래된 헛간을 재생한 길모퉁이 집인데 높은 천장을 활용해 3개 층으로 나누어 개조했다. 특히 3층에 설치한 수영장 쪽 지붕을 없애면서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물인 트러스만 보존했다. 옛 건물의 기초를 보며 물과 하늘을 함께 즐기는 경험이란! 전위적이지만 주변과 거슬림 없는 접근법은 레노베이션이 품은 미래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1 창의적인 레노베이션의 범례를 제공한 '치셰 코트야드'.
2 '카자 보난사'의 트러스는 건물의 맥락을 살리면서 활기를 불어넣는다.



1 세계에서 가장 마른 빌딩이 되는 '111 웨스트 57번가'와 어우러지는 센트럴 파크의 전경이 감동적이다. 2 세계 최고층 주거 전용 빌딩 '센트럴 파크 타워' 펜트하우스의 내부 모습. 3 올 초 발표한 '게리 프로젝트'의 디자인 개정안에는 프랭크 게리의 개성이 가득 담겼다.

Super Tall Residence

세계초고층빌딩협회는 높이 200m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으로 부르며 300m 이상은 '슈퍼 톨super tall', 600m 이상은 '메가 톨mega tall'로 구분한다. 2015년, 전 세계 100번째 슈퍼 톨이 맨해튼에 탄생했다. 그 주인공 '432 파크 애비뉴Park Avenue'는 높이 426m로 당시 세계 최고층 주거 전용 빌딩이었다. 96층 펜트하우스의 가격만 9500만 달러(약 1059억 원). 초호화 주거 빌딩의 역사를 써내려간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의 이 같은 일명 '연필 타워'들은 뉴욕에서 억만장자 스트리트를 구축했다.

올해 완공하는 '센트럴 파크 타워Central Park Tower'는 472m로 이전 세계기록을 갈아치운다. 아직 마무리 단계지만 이미 작년 말 입주자 중 일부가 들어와 살고 있다. 기념비적 건물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는 스타급 실내 건축가 로런 로테트Lauren Rottet의 로테트 스튜디오가 맡았다. 호화로운 내부는 슈퍼 리치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111 웨스트 57번가111 West 57th Street'도 높이 438m로 올해 완공될 슈퍼 톨 주거용 건물이다. 16층짜리 스타인웨이 홀을 그대로 살리고 그 위에 주거용으로 84층을 더 올린다. 1925년 완공 이래 90년째 뉴욕의 문화 명소로 활약 중인 스타인웨이 홀의 역사적 맥락을 지키면서 초호화 주거 건물로 용도가 바뀐 경우다. 센트럴파크 중앙부의 황금 입지를 자랑하는 이곳에는 단 60세대만 입주한다. 지면 대비 높이 비율이 1:24로 세계에서 가장 마른 빌딩이기 때문. 펜트하우스 가격이 6600만 달러(약 738억 원)인 이 건물의 별명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다.

연필 타워의 또 다른 각축장은 캐나다 토론토다. 북미에서 시카고와 맞먹는 부자 도시인 토론토에 끊임없이 발표되는 초고층 건물 계획 중 '게리 프로젝트Gehry Project'가 눈길을 끈다. 스타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고향이 바로 토론토이기 때문. 1929년생 노장의 금의환향에 어울리는 반짝이는 트위스트 건물 두 동 중 가장 높은 쪽은 슈퍼 톨에서 2m 모자란 298m다. 세계 각지의 부유한 도시에 생기는 슈퍼 톨 레지던스의 끝은 어디일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짓는 높이 1000m의 '제다 타워'가 완공되면 주거 건축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지 주목된다.

Speedy Completion

현장 작업의 온갖 변수로 진이 빠진 사람들은 빠르고 저렴하며 쉽게 집을 소유하는 방법을 원한다. 여기에 일조하는 공법이 바로 모듈화와 프리패브리케이션prefabrication이다. 기존 단점이던 몰개성과 심미적 매력의 부재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스페인의 젊은 건축가 그룹 델라베가카놀라소DelaVegaCanolasso가 만든 모듈형 주택 '티니Tini'는 외부 파사드와 내부 목재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자체 전원으로 버티는 오프그리드off-grid까지 가능하다. 아름다운 들판이나 청명한 숲에 트럭으로 운송 가능한 티니는 폭 3m를 기본으로 가로 길이가 7.8m인 티니 S(23.5m²)가 3만 6190유로(약 4890만 원), 11.3m 길이의 티니 M(34m²)이 4만2570유로(약 5753만 원)에 판매 중이다.

아예 기업이 나선 경우도 있다. 무인양품에서 전개하는 '무지 하우스Muji House'는 지금까지 도심 지역에서 칸막이를 최대한 제거하고 계단실을 구축해 효율적인 공간을 구축한 '기노이에木の家', '마도노이에窓の家', '다테노이에縦の家' 그리고 커다란 유리문과 나무 덱을 경계 삼아 집 내·외부가 흐려져 자연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요우노이에陽の家'를 출시했다. 자연광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요우노이에는 가로 11.83m, 세로 7.735m를 기본으로 총면적 91.5m²의 목조 주택이 세금 포함 1756만 엔(약 1억8000만 원)이다.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정평이 난 무지 스타일을 주거 공간으로 즐기는 게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이다. 모듈화를 통해 20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노부부, 초등학생 아이가 딸린 30대 부부 등 테마별 추천까지 해준다.

프리패브리케이션이 빠르고 쉬운 주거 건축의 현재라면, 3D 프린팅은 집짓기의 미래다. 올 3월 이탈리아 라벤나에서 현지의 진흙을 재료로 200시간 동안 출력해 둥근 호박 2개가 이어진 모양의 3D 프린팅 주택을 짓는 데 성공했다. 기술과 진흙을 합친 '테클라TECLA'라는 이름의 집은 3D 프린터용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건설만큼 혁신이 느린 분야도 드물다. 하지만 이런 대안적 방법으로 지은 집이 늘어날 때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확신으로 바뀐다. 이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

1 현지 진흙을 재료로 사용해 3D 프린터로 출력한 '테클라'. 건축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 시도다.
2 무지 하우스의 '요우노이에'는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흐려 자연과의 만남을 강화한다.
3 '티니 M'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스페인 어디로든 배송 가능한 모듈형 주택이다.

Meditative Simplicity

팬데믹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큰 혼란이 왔다. 혼돈을 잠재우는 효과적인 대처는 최대한 단순해지는 것이다.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상적 단순함이 깃든 공간은 코로나 블루의 늪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올린다. 생기가 맴돌아야 하는 공간 이면에는 비움에 자리를 내어주는 차분함이 필요하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 응축된 요체다. 그렇기에 사람의 주거 공간에는 단순함과 규칙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조화를 향한 여정을 떠날 수 있다.

일본 효고현의 소도시 다카라즈카에 있는 '호-하우스HO-House'는 직선과 그리드가 직조하며 만들어낸 텅 빈 공간의 연속이다. 언뜻 허무하기도, 쓸쓸하기도 하지만 내부 공간의 연속성을 추상적으로 승화시켜 기하학적 단순함과 보이드로 구현해 내면을 청명하게 깨운다. 스페인 국경에 인근한 포르투갈의 소도시 몬사라스에는 지면에 숨어있는 집이 있다. 이름도 '하우스 인 몬사라스House in Monsaraz'일 정도로 원초적인 이곳은 소탈하게 질감을 살리며 동굴을 연상케 하는 아치형 공간의 연속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기하학적 호가 겹치며 만드는 공간은 실상 굉장히 정밀한 계산의 산물인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내부의 나무 벽이다. 따스한 톤으로 처리된 목제 유닛의 반복 덕분에 공간이 적당한 포근함과 안정감을 지닌다. 스페인 발렌시아에 지은 '오프만 하우스HofmannHouse'의 경우는 순백으로 가득 찬 미니멀한 구조 때문에 언뜻 냉랭해 보이지만, 곧 빛나는 햇살이 건물과 수영장을 비춰 그림자와 빛의 생기가 더해지면 사람의 정서를 보살피는 마법을 발휘한다.

명상적인 단순함은 모든 건물에 숨겨진 기초이며, 이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더하면서 우리가 아는 주거 건축의 다양성이 발현된다. 즉 복잡한 세상에 언제나 존재하는 단순함에서 정서적인 명상의 기회를 포착하는 적극성에 따라 삶의 공간은 스스로 진화하는 셈이다.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잊히지 않는, 사람을 위한 공간의 비밀이다.

글 전종현(게스트 에디터)

1 현대적 단순함이 돋보이는 구보타 아키텍츠 아틀리에의 '호-하우스'. 2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아이르스 마테우스 이 아소시아두스의 '하우스 인 몬사라스'. 3 순백의 건물, 유리창과 빛이 결합해 명상적 쾌감을 안기는 프란 실베스트레 아르키텍투스의 '오프만 하우스'.

Taste & Style

집의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주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이다.
여기, 남다른 안목과 열정으로 '꿈의 집'을 완성한 이들이 있다. 런던의 사업가 애너벨 화이트Anabel White와
밀라노의 디자이너 토마소 스핀치Tommaso Spinzi가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

아티스트 줄리 버호븐Julie Verhoeven의 작품 앞에 선
루벨의 공동 창립자 애너벨 화이트.

커다란 태피스트리 작품이 걸려 있는 거실.
필립 토머스Philip Thomas가 디자인한 메종 젠슨Maison Jansen의
야자수 모양 플로어 램프로 포인트를 줬다.

빅토리아풍 주택을 휴양지로 변신시킨 사업가 애너벨 화이트의 집

루벨(Lubelle.co.kr)은 건강과 웰빙, 뷰티, 음식, 여행 등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커뮤니티 서비스다. 루이 비통 워치 & 주얼리 아티스틱 디렉터 프란체스카 암피시어트로프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명사들이 자신을 만족시킨 제품이나 경험을 이야기한다. 루벨의 창립자는 애너벨 화이트와 루시 러셀Lucy Russell이다. 스무 살 때 처음 만난 이들은 수년간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고 런던과 뉴욕, 멜버른에 거주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발판삼아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일체의 광고 없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을 소개하는 것이 이들의 철학이다.

애너벨의 집은 런던 서쪽 노팅힐 지역에 위치한다. 뉴욕에 15년 넘게 거주했던 애너벨과 남편 조스Jos가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런던에 정착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련한 집으로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졌다. "처음 본 순간 사랑스러운 외관과 질서정연한 형태에 반했어요. 다만 조금 더 개방적인 구조였으면 해서 부엌과 식당이 통합될 수 있도

1 응접실은 커다란 유리창과 여러 종의 나무, 라탄 소재의 가구를 활용해 휴양지처럼 꾸몄다. 아티스트 팀나 울러드Timna Woollard가 직접 그린 식물 모티프의 벽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2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브랜드 콜 & 손Cole & Son의 '팜 & 정글Palm & Jungle' 벽지를 활용했다.
3 나무 바닥과 계단, 식물이 어우러져 화사한 분위기를 전한다. 오크와 가죽으로 이루어진 의자는 루퍼트 베번Rupert Bevan의 제품.

간결한 벽에 개성 있는오브제로 포인트를 줬다. 바닥에는 수잰 샤프가 디자인한 모헤어 러그를 깔았다.

록 벽을 허물고 대규모 공사를 했죠. 친분이 있던 뉴욕 건축가 바질 월터Basil Walter(BW Architects)가 설계와 디자인을 맡았어요. 이를 계기로 우리의 사이도 더 가까워져서 공사를 마칠 때쯤엔 저의 친한 친구 한 사람이 그와 결혼까지 했답니다.그 후 딸을 낳았는데 제 이름을 따 애너벨이라 지었어요." 애너벨이 집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전했다. 바질의 창의적 시도 덕분에, 이 집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집 뒤의 정원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커다란 창을 통해 풍부한 햇살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 특히 테라스와 이어지는 응접실은 커다란 식물과 라탄 가구 덕분에 휴양지에 온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더 러그 컴퍼니The Rug Company의 창립자이자 세계적인 러그 디자이너 수잰 샤프Suzanne Sharp의 도움을 받았다. 공사 중에 마침 근처에 사는 친구 수잰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애너벨은 말한다. "수잰은 색과 무늬를 조합하는 데 탁월한 감각이 있어요. 또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최고급품과 저렴한 제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죠. 수잰과 저는 집 안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되 심각하지 않은,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집을 꾸미고 싶었습니다."

글 이상희(프리랜스 에디터) | 사진 Bénédicte Drummond/Photofoyer

클래식 가구와 자동차를 수집하는 디자이너 토마소 스핀치의 집

복층 구조의 새하얀 공간 속에 로마 군인의 조각상을 비롯한 여러 작품이 어우러져 마치 갤러리 같은 거실.

밀라노에서 스핀치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토마소 스핀치.

토마소 스핀치의 아파트는 이탈리아 가구 제조의 중심지로 불리는 밀라노 인근 브리안차Brianza 지역 근처에 자리한다. 집과 인연이 닿은 건 지구 반대편으로 1만6000k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다. 당시 호주 멜버른에서 근무하던 토마소는 여러 집을 물색하던 중 우연히 이 아파트를 발견했다. '처음엔 꽤 끔찍한 상태였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그는 인생의 변화를 빠르게 결정했고, 2주 후 밀라노행 비행기에 올랐다.

토마소 스핀치는 인테리어 장식과 가구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 겸 컨설턴트다. 스위스와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일했고 현재는 밀라노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클래식 가구와 자동차, 오토바이의 열정적인 수집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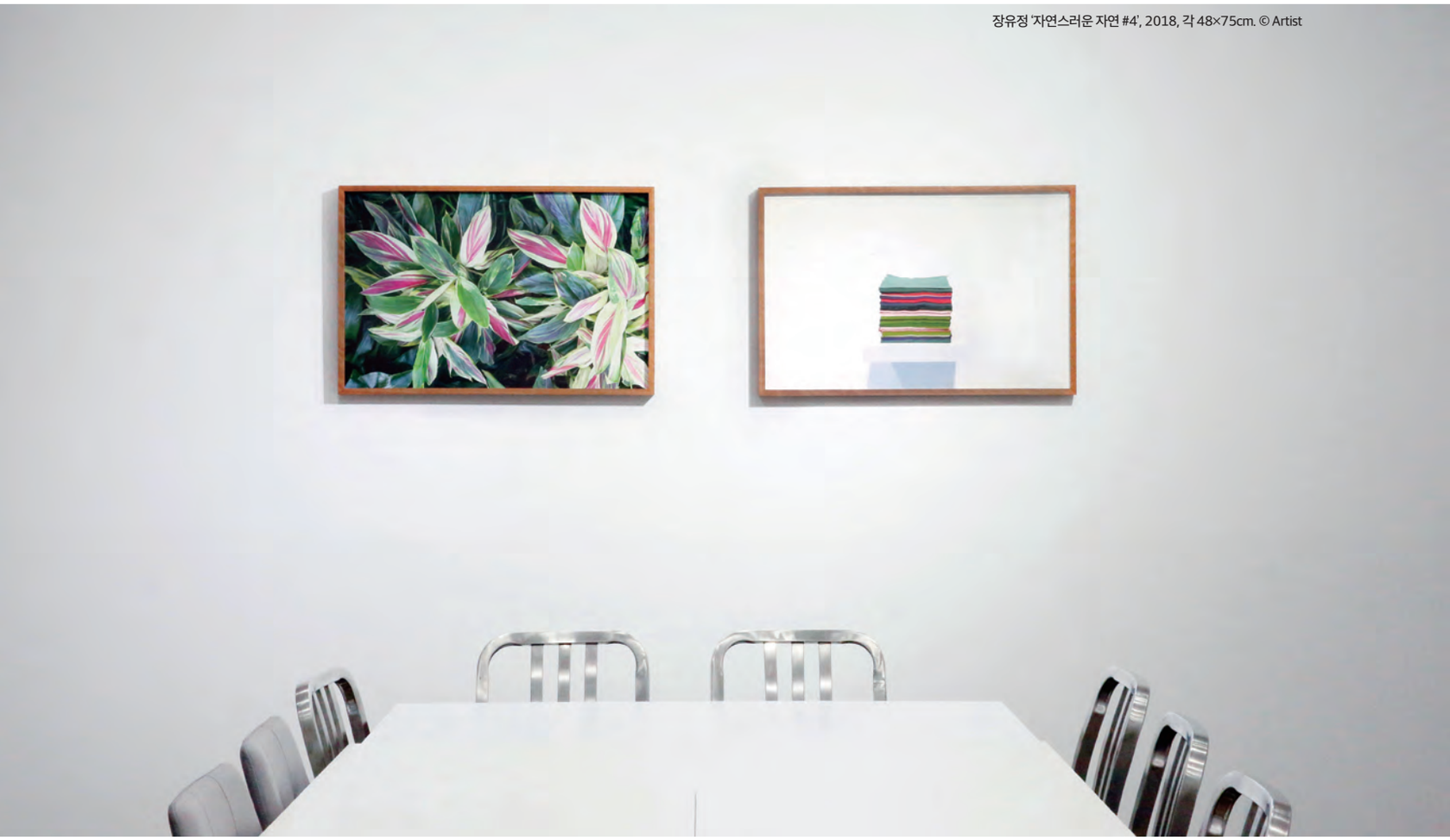
밀라노의 새 아파트는 그의 경력과 취향을 담아내는 데 탁월한 무대였다. 완전한 개방형이며 크게 2개의 주요 생활 공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오락용, 다른 하나는 휴식용으로 꾸몄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실물 크기로 제작한 로마 군인의 황동 조각상이 시선을 끈다. 아티스트 알레산드로

아티스트 일라리아 프란차Ilaria Franza의 작품이 걸린 다이닝룸. 황동 소재의 '이클립스Eclipse' 조명과 '팔라듐Palladium' 스툴은 토마소가 디자인했다.

팔리아Alessandro Paglia가 펜으로 그린 초현실적 작품이 조각상과 어우러져 독특한 인상을 전한다. 고전과 현대의 조화다. 대리석으로 만든 빈티지 커피 테이블과 웨스트엘름의 '마티니Martini' 사이드 테이블 주위에도 여러 개의 조각 작품을 배치했다. 마리오 벨리니Mario Bellini가 디자인한 B&B이탈리아의 '르 밤볼레Le Bambole' 소파 뒤에는 토마소가 직접 디자인한 '오리지니Origini' 테이블을 놓았다. "집 안의 모든 것이 유동적입니다"라고 토마소는 소개했다. 이는 색상에도 적용되는 규칙이다. 현재는 일부 벽을 녹색으로 칠했는데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꾼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인의 굳건한 취향일 것이다. 미노티의 빈티지 안락의자나 포르나세티 쿠션 등에서 이탤리언 클래식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집 안에 자리 잡은 1983년형 포르쉐 '911' 자동차도 토마소의 애장품이다.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자동차는 '파필로나Papillona' 플로어 램프와 캐비닛 사이에 작품처럼 서 있다. "사실 처음엔 일시적인 재미를 위해 들여놓았는데, 방문한 친구들이 계속 두길 권하더군요. 빠른 속도로 바뀌는 이 집에서 몇 안 되는 영구적 인테리어가 될 것 같아요."

글 이상희(프리랜스 에디터) | 사진 Filippo Bamberghi/Photofoyer

1 스테인리스스틸 캐비닛과 장식적인 소품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발산한다. B&B이탈리아의 '코로나도Coronado' 소파 맞은편에 놓인 벨벳 안락의자는 1950년대 미노티 작품.
2 포르쉐 911을 전시한 방은 밀라노의 플로리스트 플로리피초Florificio와 협업해 그리너리 인테리어로 꾸몄다.
토비아스 카르파Tobia Scarpa가 디자인한 플로스Flos의 '파필로나' 플로어 램프도 볼 수 있다. 3 부엌 앞에는 직접 디자인한 '오리지니Origini' 테이블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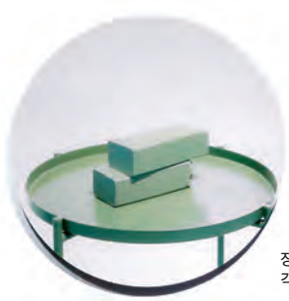


장유정 '자연스러운 자연 #4', 2018, 각 48×75cm. © Artist

Art for Home

취향에 맞춰 자신의 공간을 꾸미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특별한 감성을 더할 아트 작품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집 꾸밀 때 도움이 될 현명한 예술 작품 선택법을 소개한다.

소파 뒤에 가로로 긴 그림 한 점, 집에 들어오는 입구 맞은편에 세로로 된 그림 한 점 정도 걸면 충분하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컬렉션 좀 한다는 집마다 거실에는 배병우 작가의 소나무 사진이, 입구에는 이강소 작가의 오리 그림이 비슷하게 걸려 있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생활 공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일괄적인 아파트의 구조도 개조를 통해 개성적으로 바꾸는 시대다. 층고가 높아져 갤러리 같은 집도 많이 생겼다. 단색화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여전하지만 트렌드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개성적인 작품을 걸겠다는 소신 있는 컬렉터도 늘어나고 있다. 그림이나 조각뿐 아니라 설치미술이나 비디오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장유정 '자연스러운 자연 #6', 2018, 각 45×45cm. © Artist

정진아 'Fragments-Intangible Objects', 2018, 38.1×27.9cm. © Artist

다양한 장소 활용

성공한 갤러리스트들의 스토리를 소개한 책 <갤러리스트>를 집필할 때, 갤러리스트가 꼽는 진짜 컬렉터는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바로 작품을 걸 벽이 더 이상 없어도 계속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지어 벽에 공간이 없으면 천장에라도 그림을 건다. 대개의 경우는 작품을 산 다음에 걸 위치를 생각하기보다, '빈 벽이 있으니 그림을 걸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찾아보면 의외로 그림을 걸 수 있는 장소는 많다.

'갤러리'라는 이름이 건물의 긴 복도를 뜻하는 말에서 온 것처럼, 통로도 추천하는 장소다. 단 이런 곳에서는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현정 혹은 정진아 작가의 드로잉처럼 작은 그림을 나란히 걸어서 동선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추천한다. 주로 작품을 거는 장소는 침실이다. 침대 머리맡 위에 걸어도 좋고, 맞은편이나 사이드 벽에 걸면 누웠을 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장유정 작가의 사진, 박주영 작가의 작품처럼 쌍으로 두 점을 나란히 배치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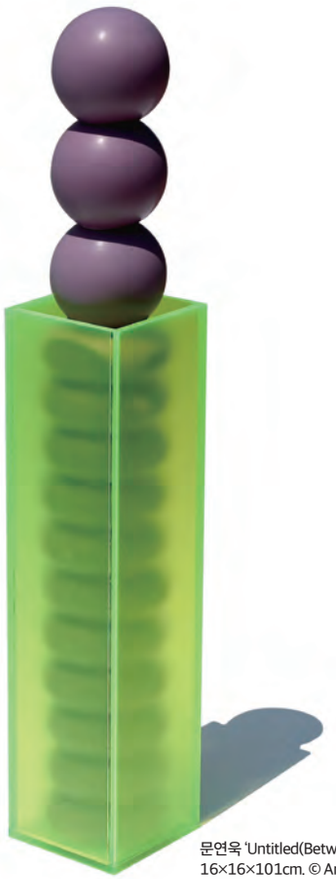
안현정 'Homing', 2021, 97×130.3cm. ©Artist

안현정 'Off White Wish You Were Here Series 01', 2020, 116.7×90.9cm. © Artist

색과 공간감

예술 작품이 주는 힘을 확실하게 느껴보려면 벽에 붙는 평면 작품보다는 공간 속에 두거나 늘어놓는 조각 혹은 설치 작품을 권한다. 좁은 공간일수록 오히려 그 작품으로 인해 공간의 인상이 확실하게 다가온다. 조민지 작가의 모빌은 사이즈도 다양하고 가벼워서 어느 장소에도 가볍게 걸 수 있고, 작은 유리로 만든 작품은 욕실 같은 장소에 두기에도 그만이다. 요즘은 복층 계단참이 있거나 층고가 높은 집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공간 속에 활력을 주는 모빌 형태의 작품이 인기다.

문연욱 작가의 컬러풀한 조각은 거실 소파 옆에 무심히 놓으면 공간에 생기를 전할 뿐 아니라 파티션의 역할도 겸할 수 있다. 농담을 자주 하는 유쾌한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떨까? 밝고 유쾌한 작품은 바로 그런 존재다. 안현정 작가의 추상화는 색과 형태의 조화를 감상하기에 그만이고, 정진아 작가의 추상 회화는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답게 붓질의 흐름을 통해 바람과 에너지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장유정 작가의 사진과 오브제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그린 인테리어의 효과를 더한다. 금속으로 만든 이재익 작가의 오브제도 오묘한 푸른색과 유기적 형태로 자연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한정은 작가의 동글동글한 아트 퍼니처는 거실의 소파 사이에 자리해도 좋겠지만 베란다에서 사이드 체어로, 혹은 현관 입구에서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잠시 사용하는 스툴로 매력적인 포인트 가구가 될 수 있다.



문연욱 'Untitled(Between O&I)', 2019, 16×16×101cm. © Artist

이재익 'Transition stroke I', 2020, 32.5×32.5×63.8cm. 'Transition stroke II', 2020, 29.2×29.2×70.7cm. © Artist

조민지 '부유하는 자연', 2020, 35×150×20cm. © Artist

한정은 'Face Stool', 2016, 35×55×33cm © Artist

취향의 표현

요즘 리빙 트렌드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가 집 안에 또 다른 성격의 공간을 하나 더 두는 것이다. 재택근무를 위한 오피스, 퇴근 후 휴식을 위한 게임 방뿐만 아니라 이제는 테라스를 약간 높여 한옥 마루 같은 공간을 만들거나 조용히 명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다실을 마련하는 것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공간을 구성할 때에는 그 안의 인테리어나 작품은 집 밖의 다른 공간과 완전히 차별화하는 것이 좋다. 동양풍의 다실을 꾸몄다면 한옥 창살과 부드러운 처마의 선에서 영감을 받은 최수영 작가의 태피스트리 작품을 공간의 중심부에 늘어놓거나 박경묵 작가의 단단한 바위를 그린 그림 또는 박주영 작가의 시원한 바람을 그린 흑백의 수묵화를 걸어놓을 것을 추천한다.

박주영 'Pray', 2021, 각 240×104cm. © Artist

박경묵 'Still Rock 106', 2020, 140×92cm. ©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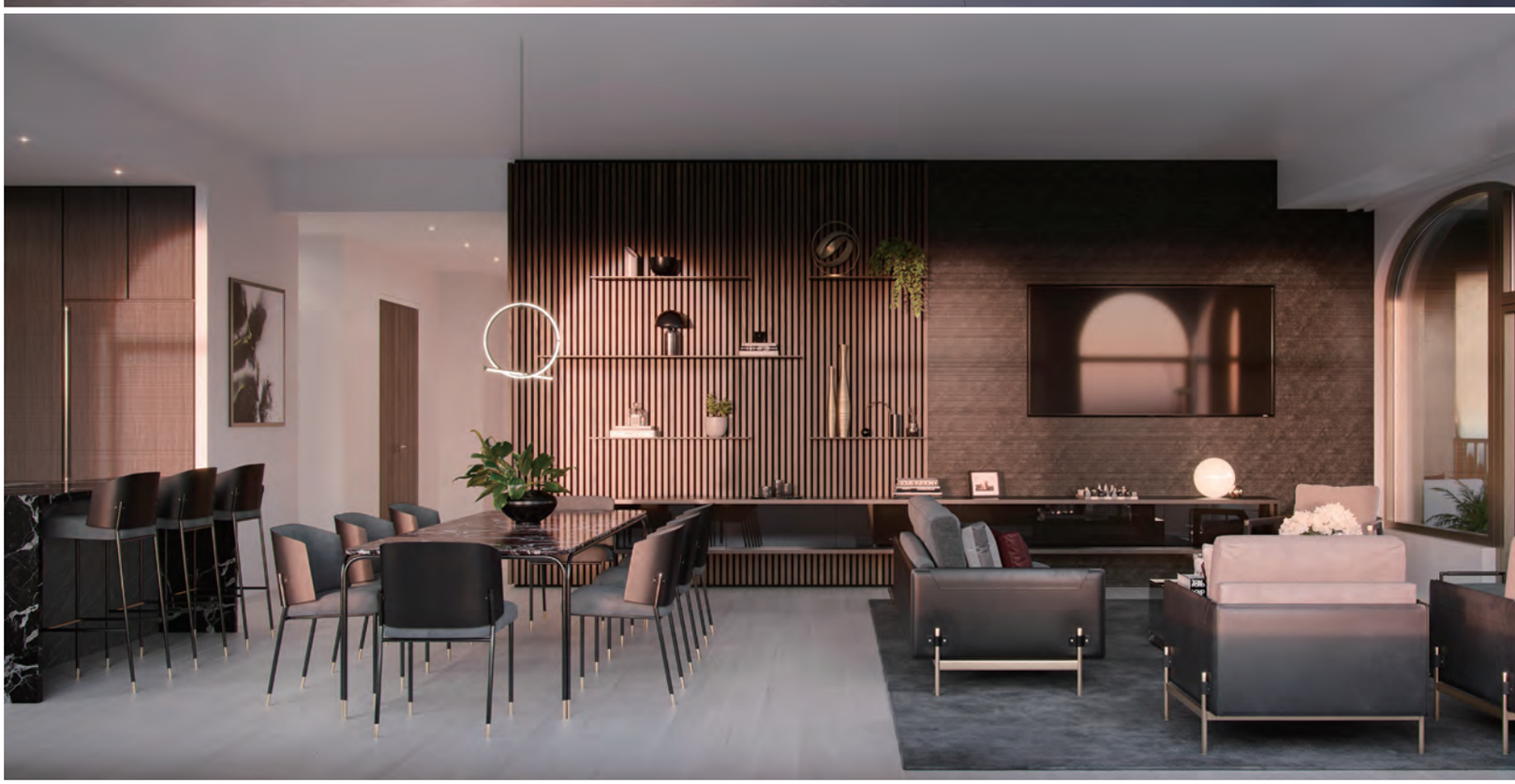
삶 속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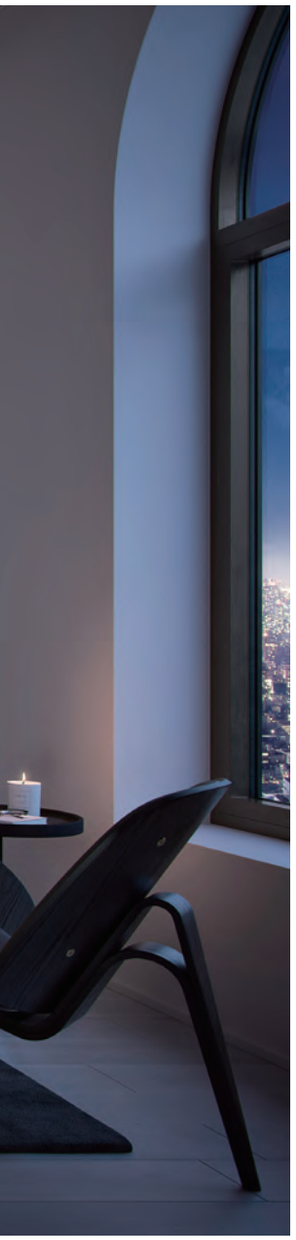
집 안에 놓을 작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이 남았다. 가급적이면 작가의 전시회를 보고 작품을 구매하라는 것이다. 이미 구매한 작가의 작품이라면 더욱 전시회를 찾아가볼 필요가 있다. 집에 사진을 걸어놓을 때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그 속에 담긴 추억을 회상하고 힘을 얻는 것이다. 작품도 마찬가지다. 전시회에서 집에는 도저히 가져다놓지 못할 대작이나 설치 작품을 보고 작가의 힘을 느꼈을 때, 내 집에 있는 작은 작품에서도 같은 감동을 찾아낼 수 있다. 예술 작품이 단지 장식품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김영애(이안아트컨설팅 대표)

Brand Residence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의 감성과 가치를 집에서도 오롯이 누릴 수 있다면?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가 만든 레지던스에서는 최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는 물론
일상 속 사소한 순간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한 디테일을 경험할 수 있다.





뉴욕 맨해튼 '130 윌리엄' 빌딩에 자리 잡은 애스턴마틴 레지던스. 다섯 채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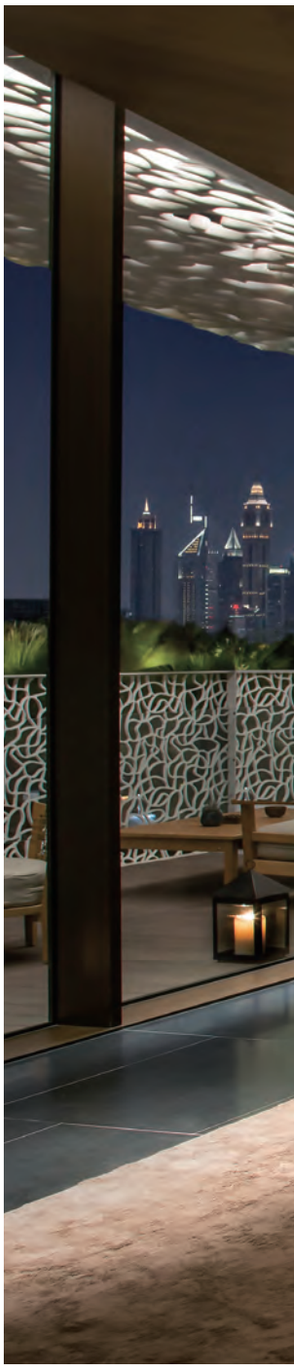
Aston Martin Homes

올가을 증권거래소가 늘어선 뉴욕 맨해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동쪽에 66층 규모의 최고급 레지덴셜 빌딩 '130 윌리엄130 William'이 문을 연다. 간결하지만 힘 있는 디자인으로 정평이 난 건축가 데이비드 아디아예David Adjaye의 작품인 이 빌딩에서는 맨해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아치형으로 외관과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이며, 프라이빗 아이맥스 영화관이나 인피니티 스파, 펫 스파같이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럭셔리한 공간들로 채워졌다.

자동차 브랜드 애스턴마틴도 데이비드 아디아예와 손잡고 130 윌리엄 안에 다섯 채의 레지던스를 선보인다. 빌딩의 59, 60층에 위치한 레지던스는 펜트하우스 두 채 그리고 발코니와 내부를 연결한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강조한 로지아 주택 세 채로 구성된다. 내부는 130 윌리엄과 애스턴마틴의 디자인 DNA를 결합해 클래식하면서도 섬세함과 날렵함을 잃지 않은 모양새다. 여기에 부드러운 곡선의 아치 형태와 대리석이나 스틸 같은 차가운 물성의 소재, 짙은 컬러가 조우하며 세련미를 뽐낸다.

내부의 가구와 패브릭, 소품은 애스턴마틴의 리빙 브랜드인 애스턴마틴 홈 컬렉션의 제품들로 데이비드 아디아예와 애스턴마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렉 라이히먼Marek Reichman이 직접 큐레이팅했다. 침실 중 하나를 레이싱 시뮬레이션 룸, 오피스, 서재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점 또한 흥미롭다. 여기에 입주자에게는 브랜드 최초의 SUV이자 인기 모델인 'DBX'의 스페셜 에디션을 제공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애스턴마틴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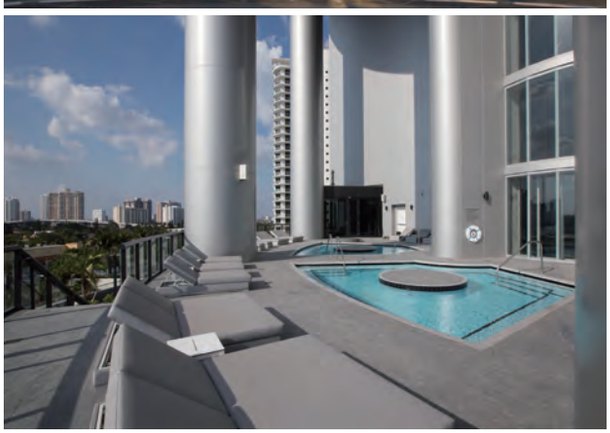
마이애미 서니 아일스 해변에 위치한 60층 규모의 포르쉐 디자인 타워.



Porsche Design Tower

최근 애스턴마틴, 벤틀리 등 여러 자동차 브랜드가 레지던스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지만 포르쉐는 이미 이들보다 이른 2017년, 마이애미 서니 아일스 해변에 60층 규모로 132채의 집이 들어선 레지던스 빌딩을 선보였다.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도 레지던스 한 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포르쉐 디자인 타워는 건축가, 부동산 개발 회사와 손을 잡고 포르쉐가 인테리어를 도맡아 완공했다. 혁신적 기술과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미래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 공간은 그간 자동차뿐 아니라 시계, 전자 제품 등을 선보여 온 포르쉐 디자인의 실력을 십분 녹여냈다는 평가다. 서니 아일스 해변의 풍광과 대리석으로 마감한 내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태어났다. 또 유선형의 가구와 모노톤의 실내 마감으로 포르쉐의 강렬하고도 세련된 디자인 감성을 표현했다.

인테리어는 물론, 주차 시스템마저 포르쉐 마니아의 마음을 완벽히 사로잡는다. 빌딩 내부에 투명한 유리 형태의 자동차 전용 엘리베이터 '데저베이터Dezervator'를 마련해 집 안 거실에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거실에 편안히 앉아 자신의 자동차를 한 편의 작품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해 포르쉐의 가치를 더한다.



두바이의 인공 섬 팜 주메이라에 오픈한 불가리 리조트.

Bvlgari Resort

2001년부터 밀라노, 런던, 베이징 등 6개 도시에 호텔 & 리조트를 열었으며 로마, 모스크바 등에도 오픈 계획을 갖고 있는 불가리.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와 함께 공간을 운영해 격이 다른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테리어, 어메니티 등을 통해 불가리가 지닌 브랜드 감성과 취향을 오롯이 전한다.

그중에서도 두바이의 인공 섬 팜 주메이라에 오픈한 불가리 리조트는 과감한 디자인을 선보여온 이탈리아의 유명 건축가 안토니오 치테리오Antonio Citterio가 설계와 디자인을 담당해 외관부터 남다르다. 화이트 컬러의 산호 패턴을 적용한 파사드가 멀리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안토니오 치테리오는 모래바람이 불고 고온 건조한 이 지역의 기후를 고려해 유리나 메탈 대신 대리석, 목재 등 내구성 강한 자연 소재를 건축 전반에 사용했다. 내부는 패션 브랜드로서 불가리의 정체성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가득하다. 조명은 불가리의 주얼리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과감하고 화려하며, 커튼 등의 패브릭은 촉감까지 섬세하게 골랐다. 또한 가구와 조명 모두 B&B 이탈리아, 플로스, 플렉스폼 등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의 제품으로 선별해 럭셔리한 일상을 구현했다. 레지던스는 아파트, 맨션, 펜트하우스로 나뉘며 모든 레지던스가 넓은 발코니를 통해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을 즐길 수 있다.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팔라초 베르사체 두바이.

Palazzo Versace Dubai

극적인 화려함과 관능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베르사체. 패션을 넘어 공간으로 만나는 팔라초 베르사체는 외관, 내부를 구분할 것 없이 어느 곳이든 웅장한 아름다움으로 방문객을 압도한다. 팔라초 베르사체 두바이는 2015년 문을 열었다. 베르사체의 수석 디자이너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2000년 호주 골드코스트에 첫 팔라초 베르사체를 오픈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곳이다. 차분한 컬러 팔레트나 몰딩, 모자이크 타일 등의 디테일로 좀 더 정제된 고급스러움을 지향한 것이 특징. 그러나 로비 바닥에 모자이크 타일로 수놓은 메두사 형상을 보면, 여전히 베르사체의 강렬한 미학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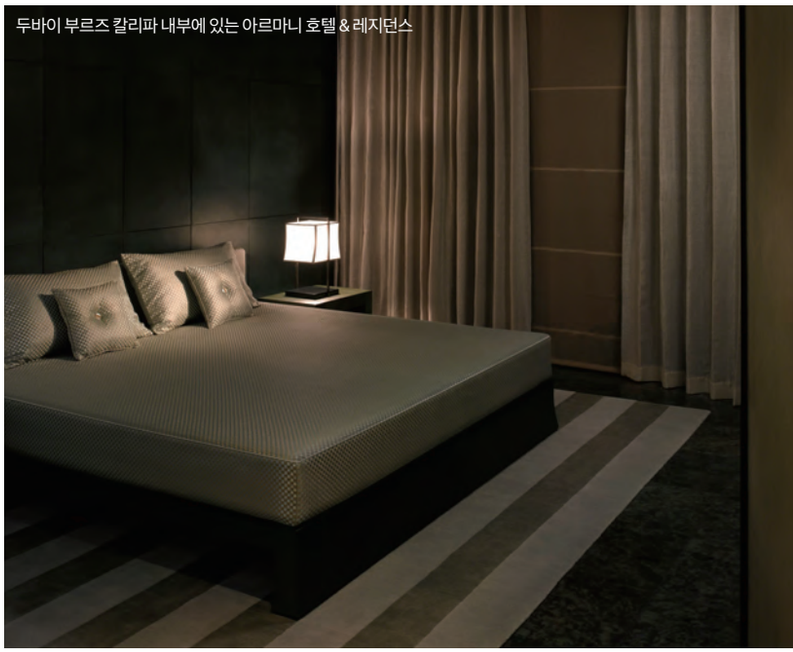
215개의 호텔 룸과 169개의 레지던스 빌라로 이뤄진 팔라조 베르사체는 테이블웨어부터 카펫, 가구, 비누까지 베르사체가 손수 제작한 것들로만 채웠다. 모두 베르사체 홈 컬렉션 제품들로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2~4개의 침실로 구성되는 레지던스는 거실, 주방, 욕실 전체를 모자이크 타일로 꾸몄고, 침실은 유럽의 미술관이나 궁전에서 볼 수 있는 파르케parquet 마루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여기에 청록색, 베이지, 살구색 등의 시그너처 컬러 팔레트 중 입주자가 선호하는 색으로 공간을 결정할 수 있다. 팔라초 베르사체에 머물기 위해 굳이 두바이로 이민을 계획할 필요는 없다. 30일 이상 장기 투숙하는 게스트를 위해 롱 스테이 서비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Armani Hotel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층 빌딩 중 하나이자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맨몸으로 건물을 등반하는 장면으로 유명한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안에 아르마니 호텔이 자리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바이 분수 쇼를 객실과 다이닝룸에서 편히 볼 수 있는 데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두바이 몰과도 연결된 아르마니 호텔은 여행객이 꼭 방문해야 하는 인기 스폿 중 하나다.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인테리어부터 작은 오브제까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해 완성했으며, 스위트룸만 9가지 타입이 있을 만큼 세심하게 구성했다.

'아르마니와 함께 머물다Stay with Armani'라는 문구 한 줄이면 이 공간을 모두 표현한 것과 같다. 아르마니 로고가 박힌 버틀러의 유니폼부터 공간을 채우는 향까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오롯이 담았다. 인테리어도 블랙 컬러를 베이스로 다양한 패턴과 소재를 활용해 아르마니의 슈트를 입은 듯 절제된 섹시미를 공간에 고스란히 그려냈다.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내부에 있는 아르마니 호텔 & 레지던스

호텔 내 9~16층에 위치한 레지던스도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깨끗하고 우아한 취향을 십분 반영했다. 그가 생각하는 완벽한 주거 공간에 대한 철학인 '친밀하지만 편안히 쉴 수 있고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공간'을 구현한 것. 116~190m^{2}의 넓은 면적을 1~2개의 침실과 주방, 욕실로 채운 간소한 구성 속에 간결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여백을 강조한 동양의 아름다움, 완벽을 기한 디테일, 무채색이 전하는 편안함 등을 두루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아르마니의 리빙 브랜드인 아르마니 까사 제품들로 공간을 채워 진정한 휴식과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한다.

글 유승현(게스트 에디터)

Goldmund

골드문트 아폴로그 애니버서리 스페셜 에디션 세계적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골드문트의 기술력을 집약한 모델. '아폴로그'의 탄생 25주년을 맞아 2012년 제작한 에디션의 성능을 더욱 개선한 것으로 지난해 매트 블랙 컬러로 리뉴얼해 전 세계 5대 한정 출시했다. 저음역대의 사운드를 보다 강력하게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화가 클라우디오 로타 롤리아 Claudio Rotta Loria가 디자인해 1987년 출시한 아폴로그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전시될 만큼 하이엔드 스피커의 상징과도 같은 스피커다. 새롭게 출시한 한정판은 6웨이 무선 액티브 스피커로 강력한 저음역대를 자랑하며, 6채널 내장 앰프가 3600W의 출력 수를 자랑한다. 주파수 반응은 200Hz~30kHz. 각 음역대의 진폭을 뛰어나게 보정해 원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구현한다.

Ideal Speakers

좋은 스피커는 집이라는 공간을 청음실과 공연장 못지 않게 즐거운 장소로 만들어준다.
사운드의 질감과 색을 유려하게 표현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의 대표적 스피커를 소개한다.

Focal

그란데 유토피아 EM EVO 1979년 설립한 프랑스 스피커 전문 브랜드 포칼의 최상급 모델, '그란데 유토피아'의 4세대 플래그십 모델로 5개의 유닛을 탑재한 4웨이 스탠딩 스피커. 높이 2012mm, 폭 654mm, 무게 265kg의 압도적 위용을 자랑한다. 티타늄, 알루미늄 소재 대신 포칼 특유의 베릴륨으로 만든 트위터를 적용해 소리의 떨림을 최소화했고, 플래그십 모델답게 첨단 기술력을 더했다. 드라이버 유닛 내부에는 자기장을 안정화해 소리의 변형을 막는 'NIC(Neutral Inductance Circuit)'기술을 적용했고, 중대역 음질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TMD(Tuned Mass Damper)'도 탑재한 것이 특징. 감도는 94dB, 주파수 응답 특성은 18Hz~40kHz. 저음부터 고음역대까지 넓은 범위의 사운드를 생생하게 재생한다.

Burmester

버메스터 페이즈3 레트로 스타일 부가티,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등의 고급 카 오디오를 제작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진 독일의 오디오 명가, 버메스터의 오디오 올인원 시스템. 161 디지털 올인원 리시버와 B15 스피커로 구성되어 어떤 공간이든 간결한 디자인의 오디오 시스템을 구현한다. 스피커는 2웨이 2스피커로 40Hz~45kHz의 광대역 주파수 응답 특성 대역을 지녀 높은 품질의 사운드를 출력해낸다. 간결한 세팅 시스템도 돋보인다.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할 때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려면 복잡한 연결선 등을 처리하는 것이 번거로운데, 버메스터의 자체 앱을 활용하면 복잡한 세팅 없이 직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디자인 콘셉트는 크롬 마감과 컬러 장식으로 구성된 레트로 스타일과 투박하고 거친 표면 처리가 특징인 로프트 스타일, 2가지로 나뉜다.

Steinway

스타인웨이 링돌프 모델 D 덴마크의 오디오 장인 페테르 링돌프가 피아노 제조사 스타인웨이 & 선즈의 피아노 소리를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 협업한 것이 스타인웨이 링돌프의 시작. 스타인웨이 링돌프의 모든 스피커는 함부르크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같은 마감 과정을 거친다. 공간 안에서 최적의 이퀄라이징을 자동 설정하는 룸 퍼펙트 기술을 비롯해 원음과 가까운 사운드를 재현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점이 특징. 스피커 이름은 그랜드 피아노의 이름을 따르는데, 그중 플래그십 모델인 '모델D' 시스템은 3웨이 스피커와 프리앰프, 프로세서, CDP 일체형 헤드 유닛으로 구성된다. 높이 2058mm에 달하는 크기와 중앙의 24K 도금 장식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최고 음압 레벨 117dB, 20Hz~22kHz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갖췄다.

Tann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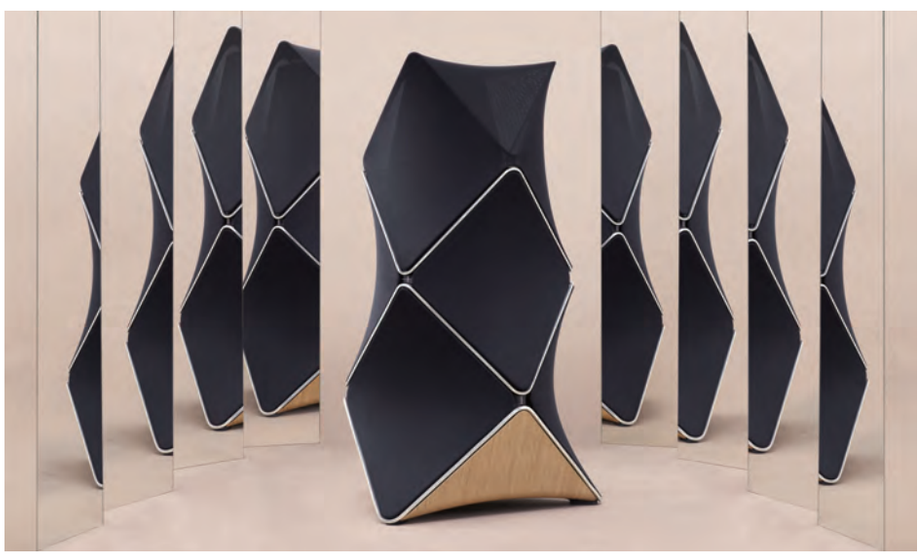
웨스트민스터 로얄 GR 1926년 설립해 영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탄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부분의 군사 시설에 탄노이를 설치했을 만큼 스피커 제조 기술력이 뛰어난 브랜드다. 가장 큰 특징은 듀얼 콘센트릭 유닛. 하나의 드라이버 안에 고음역대와 중저역대가 사람의 성대처럼 동시에 재생되는 구조이기에 안정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웨스트민스터 로얄 GR'의 짙은 무늬목 외형 안에는 15인치 골드 레퍼런스 드라이버가 장착돼 있다. 감도는 99dB, 최대 700W의 파워 핸들링을 갖춘 드라이버에서 다이내믹한 사운드가 재생된다.

Sonus Faber

올림피카 노바 3 이탈리아 특유의 화려하고 심미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소너스 파베르의 스피커. 대표적 모델 '올림피카' 컬렉션의 후속작인 '올림피카 노바3'는 현을 표현한 외관의 그릴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리가 출력될 때마다 미세한 현의 떨림을 볼 수 있어서 귀뿐만 아니라 눈까지 즐겁게 만든다. 사람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운드가 특징이라는 평을 듣는다. 셀룰로오스 펄프 등 천연 섬유 혼합물로 만든 페이퍼 콘이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구현한다. 또한 부드러운 나선형의 디자인이 공기의 흐름을 컨트롤하고, 8겹의 목재 층이 탄탄하고 강한 사운드를 완성하는 데 일조한다. 감도는 90dB, 35Hz~35kHz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지녔다.

Harman, Revel

퍼포마 F228Be 레벨 스피커의 최고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구성 요소를 새롭게 개발한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다. 고가의 1인치 베릴륨 트위터를 적용해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완성했고, 대형 보이스 코일과 세라믹 모터를 탑재한 미드레인지 드라이버를 장착해 풍부하고 정교한 사운드를 이끌어낸다. 디자인 또한 주목해서 볼 부분. 고광택 도장으로 마감한 화이트 바탕에 펄이 들어간 메탈릭 블랙으로 포인트를 더해 간결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2019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감도는 90dB, 27Hz~44kHz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갖췄다.



Bang & Olufsen

베오랩 90 총 18개의 드라이버를 장착한 뱅앤올룹슨의 기술력을 총망라한 디지털 라우드 스피커. 대형 영화관 사운드에 버금가는 8200W의 파워를 구현하고, 각 드라이버를 보조하는 18개의 앰프를 갖췄다. 사운드의 메인 출력 방향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스피커가 놓인 방의 환경을 분석해 최상의 사운드를 찾아주는 등의 혁신적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BMW의 콘셉트 카에서 영감을 받아 독일의 디자인 스튜디오, 프라켄폴 포울하임이 디자인을 맡았으며, 일체형 알루미늄 캐비닛에 블랙 패브릭 커버를 입은 것이 특징.

Harman, JBL

에베레스트 DD67000 2대의 스피커 모델을 하나의 인클로저 안에 설치한 'D44000 랜싱 파라곤' 시스템을 출시해 스테레오 사운드 역사에 족적을 남긴 JBL.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에베레스트 DD66000'의 후속작으로 전작의 성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3웨이 4스피커 시스템이다. 15인치 지름의 섬유 콘 우퍼 2개가 저음역대를 부드럽게 받쳐주고, 4인치 베릴륨 소재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중역대 소리를 풍성하게 잡아주며, 두께 0.04mm의 1인치 베릴륨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초고음역대를 섬세하게 구현한다.

글 안서경 기자

THE HOUSE OF DREAMS

모두가 꿈꾸는 집

가장 완벽한 당신이 꿈꾸던
가장 완벽한 공간

일생동안 꿈꿔왔던 라이프가 실현되는
최고의 공간

당신이 고민했던 공간의 모든 가능성을 담아
다양한 배치와 연출이 가능한
꿈의 집을 선보입니다.

For Excellent Life
좋은 집을 만드는 기준
e편한세상

모두가 꿈꾸는 집
가장 완벽한 집
최고의 삶을 선사하는 집

Maison Du Reve

ELIFE.CO.KR

E&C